

肅宗代 御眞圖寫와 畫家들

陳 準 鉉*

	目 次
I. 序 言	IV. 畫家들에 대한 考察
II. 肅宗代 御眞관련 記錄의 概要	V. 結 言
III. 肅宗代 御眞圖寫의 意義	참고문헌

I. 序 言

韓國繪畫史 研究에 항상 부각되는 문제는 繪畫자료와 文獻자료의 영세성이다. 유감스럽게도 조선시대에서는 繪畫와 畫家는 그다지 큰 사회적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기록은 영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바로 御眞의 경우이다. 御眞이란 바로 王의 肖像畫이며, 王室과 國家의 권위와 관련되어 그 제작에는 당시 최고의 畫家들이 동원되었고, 그 진행에는 최고위층이 관계하였다. 따라서 그 기록이 다른 분야에 비할 수 없이 자세하다. 이는 우리나라 회화사 연구에 더없이 귀중하다 하겠다. 그러나 현존하는 御眞관련 기록도 『朝鮮王朝實錄』을 제외하고는 대개 임진왜란 이후의 것이다. 가장 참고가 되는 『承政院日記』의 경우, 그것도 1623년 이후의 것만이 전하며, 사실상 구체적인 御眞관련 기록은 肅宗代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肅宗代 『승정원일기』도 소실되어 복구된 것으로 肅宗39년의 것이 그런데로 잘 남아있고, 肅宗14년의 것은 實錄보다 못하며, 肅宗21년의 것은 아예 없다. 이런 부분은 실록과 儀軌類의 기록이 그 공백을 어느정도 메꿔준다. 아뭏든 이들 御眞관련 기록들은 임금의 초상화란 측면을 넘어 조선조 회화사의 전반을 비추어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고는 肅宗代의 御眞관련 기록들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활약하던 畫家들, 나아가 당시 畫壇의 一面을 알아보고자 한다. 肅宗代(1674-1720)는 17세기와 18세기의 교체기 40여년으로서 조선후기 문예부흥기인 英祖, 正祖代를 예비하는 시대로서의 의미도 있다. 이에 대한 고찰은 조선시대 후반기 문예부흥기였던 英正代 繪畫에 대한 고찰에도 큰 참고가 될 것이다. 肅宗代에 이어지는 英正代의 기록은 별도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¹⁾.

* 서울대 박물관

1) 拙稿, 「英祖, 正祖代 御眞圖寫와 畫家들」, 『서울大學校博物館 年報』6호(1994. 12). 참조

II. 肅宗代 御眞관련 記錄의 概要

이 장에서는 肅宗代 御眞관련 기록들을 年代順으로 죽 살펴보겠다.

1677(肅宗3)년 南別殿을 3실로 重建하여 2개실에 世祖, 元宗御眞을 奉安하고 제1실은 太祖御眞을 위해 비워두었다²⁾.

1688(肅宗14)년 都監을 설치하여 太祖御眞을 模寫하였다. 이때 南別殿³⁾에는 世祖, 元宗의 御眞을 모시고 있었는데 3월 3일 宗室 朗原君 侁이 筭子를 올려 太祖御眞도 模寫하여 같이 모시자고 청한다⁴⁾. 그래서 肅宗은 신하들과 상의하여 都監을 설치하고 全州 慶基殿 奉安本을 모셔 와 模寫하기로 한다⁵⁾.

이때 서울과 지방의 畫師들중 마땅한 자가 없어 肅宗은 前持平 金鎭圭를 불러 模寫하게 하려 했으나 喪중에 있어 大臣들의 반대로 중지한다⁶⁾. 그래서 畫師 曹世杰, 宋彰燁, 韓時覺, 許義順, 尹商翊, 劉宗健, 申範華 등을 불러 試才를 시키는데, 太祖御眞 眞本으로 取材하는 것은 事體가 未安하여 功臣畫像중 一本을 模寫케 하여 取材한다⁷⁾. 그런데 이때 模寫한 功臣像은 淸천부원군 <柳順汀像>이었다⁸⁾.

取材에서 마지막까지 尹商翊과 曹世杰이 경합하였다. 조세걸은 운상익 보다 畫格面에서 높고 肉色을 그리는데도 장점이 있어 우세한 것으로 等第되었으나, 운상익이 나이 젊고 눈이 밝은 것으로 인해 특별히 모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조세걸도 동참시키려 했으나, 도제조 金壽興이 한사람이 그려 盡善하기 어려우니 두사람 모두 影幀 正本을 그리게 하여 나온 것을 택 하자고 건의하여 그렇게 된다⁹⁾. 나중에는 결국 尹商翊의 것이 正本으로 채택되고, 曹世杰의 것은 草本과 함께 태워졌다¹⁰⁾.

완성된 새 御眞은 5월 6일 南別殿 제1실에 奉安하고¹¹⁾, 같은 날 論賞을 하였다¹²⁾. 그리고 全州에서 모셔온 舊本은 이듬해 1월 19일 慶基殿으로 還奉되었다¹³⁾.

활약한 화사들은 主管畫師 尹商翊, 同參畫師 許義順, 追後同參畫師 張自旭, 隨從畫師 崔碩

- 2) 實錄 1677년 1월 28일(을사), 5월 6일(신사), 7월 11일(병술)조 참조. 이미 前년에 南別殿 重建 및 太祖御眞 模寫의 論議가 있었으나 중지된 바 있다. 1676년 1월 18일(신축), 7월 24일(갑진)조 참조.
- 3) 光海君 11년 서울남부 薰陶坊, 現 芋洞에 설치, 나중에 永禧殿으로 命名됨.
- 4) 『승정원일기』 1688년 3월 3일조 : “朗原君侁筭曰 伏以恭惟我太祖大王辟容 在平時奉安於景福宮之璿源殿 松都之穆淸殿 慶州之集慶殿 平壤之永崇殿 全州之慶基殿 (二行缺) 至今臣民之缺歎 爲如何哉 今若模寫一本 一體奉安後 我聖上 有時瞻拜 足爲孝思無窮之助 而其在傳遠慮後之圖 亦不無所益 臣既有所懷 敢此仰達 取進止 答曰 省筭具悉 筭辭 正合予意 當令該曹 稟旨舉行矣…” (367면 下左)
- 5) 『승정원일기』 1688년 3월 7일 巳時條 참조.
- 6) 『승정원일기』 1688년 3월 7일 巳時條 및 3월 8일조 참조.
- 7) 『승정원일기』 1688년 3월 19일 申時條 참조.
- 8)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6일조 참조.

獻이었다.

이때 文人畫家 滄江 趙涑의 아들 趙之耘(1637-1690)이 監造官으로 참여하였다.

都監 都提調는 영중추부사 金壽興, 提調는 예조판서 南龍翼, 공조판서 申汝哲, 호조판서 柳尙運이었다.

○ 참고로 일자별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3월 3일 : 都監 설치 결정

4월 8일 : 경기전 太祖御眞 맞이하여 경덕궁 자정전에 봉안함.

4월 11일 : 模寫 시작¹⁴⁾

4월 29일 : 그림 완성.

5월 1일 : 太祖影幀 草本 완성 숙종이 奉審함 尹商翊의 本을 定本으로 채택함.

5월 5일 : 장황 끝남¹⁵⁾

-
- 9) 유감스럽게도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畫師들의 試才, 模寫과정등의 상세한 내용이 거의 없다. 이는 『승정원일기』가 소실되고 나중에 새로 쓰여지면서 내용이 소략해진 탓으로 보인다, 대신 『(太祖)影幀模寫都監儀軌』1책(奎章閣13978, 13979, 14921) 「癸巳秩」 4월 10일 “畫講時 都提調 金壽興 引見 入侍時 …上曰 以畫師等第之言 既已言之矣 以畫格論之則 曹世杰固勝於尹商翊 都監等第固是也 而但商翊以年少眼明之故 特使之模寫矣 金壽興曰 模寫之體 肉色最難 而世杰之才偏長於此 取材元本 自上既已下鑑 則可以知之矣 上曰 世杰固是熟手段 且善於肉色 使之同參模寫可也 金壽興曰 影幀模寫事體重大 必須盡善 然後可以用之 而一畫師模寫盡善 安可必乎 且模寫之法 雖有諸畫師擔當者之外 本不能相助云 臣意則 使世杰, 商翊 兩人各自模寫 取其畫善之本 其未善之本則洗草 無妨矣 上曰 初番模寫成樣甚難 依所達爲之可也 金壽興曰 模寫既畢之後 臣等不可獨見取捨 自上舉動奉審然後 定之宜當矣 上曰……予當奉審而定之矣”
- 10) 『(太祖)影幀模寫都監儀軌』1책(奎章閣13978, 13979, 14921) 「啓事秩」 5월 6일 都監啓曰 “影幀模寫畫師 尹商翊, 曹世杰 各執一本畢畫後 自上親臨資政殿奉審教 是時領議政 南九萬 都提調領府事 金壽興 提調兼禮曹判書 南龍翼 行戶曹判書 柳尙運 一時入侍 以尹商翊所摸之本奉安事下教 曹世杰所畫洗草後 與草本燒火” 같은날 都監啓曰 “曹世杰所畫之本及油紙草本 兩件洗草後 與紙皆爲燒火之意 敢啓 傳曰 知道”
- 11) 『(太祖)影幀模寫都監儀軌』1책(奎章閣13978, 13979, 14921) 「移文秩」 5월 6일 都監啓曰 : “影幀舉動無事 陪來於南別殿 奉安之意 敢啓 答曰 知道”
- 12) 『(太祖)影幀模寫都監儀軌』1책(奎章閣13978, 13979, 14921) 「論賞」에 5월 6일 備忘記로 “影幀都監都提調 金壽興 鞍具馬 一匹 賜給, 提調 判書 申汝哲…加資, ……監造官 趙之耘 陞敘……主管畫師 尹商翊 加資, 同參畫師 許義順, 張自旭 東班正職除授, 隨從畫師 崔碩 兒馬一匹 賜給……”
- 13) 실록에는 模寫당년 9월 10일에 朗善君 李俔로 하여금 모시고 全州로 돌아가라 했다 하나, 이듬해 1689년 1월 19일조에 太祖影幀 舊本을 경덕궁에서 전송하여 전주 慶基殿으로 환봉했다고 다시 나온다. 『승정원일기』를 참조하면 後者が 맞다. 1688년 9월 10일자 지시는 아마 바로 전인 8월 26일 대왕대비의 승하로 이루어 지지 않은 듯 하다.
- 14) 『(太祖)影幀模寫都監儀軌』1책(奎章閣13978, 13979, 14921) 「啓事秩」 4월 11일 都監啓曰 “今日卯正三刻 奉出影幀 使畫師尹商翊模寫之意 敢啓 答曰 知道”.
- 15) 『(太祖)影幀模寫都監儀軌』1책(奎章閣13978, 13979, 14921) 「移文秩」 5월 5일 都監啓曰 : “影幀裝潢今朝始爲完畢 卽者奉安滄和堂 敢啓 答曰 知道”

5월 6일 : 새 太祖御眞 南別殿 제1실에 봉안.

1689년 1월 19일 : 太祖影幀 舊本 경덕궁서 전송 전주 경기전으로 환봉함.

참고로 이듬해 1689년에는 장희빈 소생 王子의 元子 책봉을 반대하던 송시열, 김수항 등 西人이 賜死, 배척된 己巳換局이 있었다. 이때 인현왕후 민씨, 영빈김씨도 폐출, 庶人이 되었다.

1690(肅宗16)년 南別殿을 永禧殿이라 命名하였다¹⁶⁾.

1692(肅宗18)년 永禧殿 世祖御眞을 修補하였다¹⁷⁾.

1695(肅宗21)년 4월 永禧殿 列聖御容에 표지가 없어 의외의 변이 있을 때 구별키 곤란하다 하여 쪽지에 써 좌측에 붙이고 쪽지 윗쪽에는 붉은 쪽지를 덧붙였다¹⁸⁾.

1695(肅宗21)년 7월경 肅宗御眞을 圖寫하였다. 이때는 肅宗이 禁中에서 직접 진행하여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¹⁹⁾. 어쨌든 8월 7일에 中官 二人으로 하여금 御容을 모시고 강화부로 가게 하였는데, 外朝에서는 전혀 몰랐고 강화유수 金構도 下吏의 전달을 받고야 비로소 알고 급히 관리를 대동하여 나룻가에 나와 맞이하여 본부 객헌에 모시었다. 그리고 치계하기를 御容 奉安이 너무 소홀하니 마땅히 儀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니, 肅宗은 影殿의 役事를 마치고 불안하게 하되 그 이름을 長寧殿이라 하였다²⁰⁾.

나중에 長寧殿 창건이 끝나자 강화유수 金構에게 가의대부의 품계를 더하고 공로자들에게도 포상하였다²¹⁾. 肅宗이 자신의 御眞을 그려 長寧殿을 지어 봉안한 것은 前代 임금들이 주로 先王의 御眞을 모시는데 그쳤는데 비하여 과감한 처사였다²²⁾.

그러나 이는 검양과 검소를 중시하던 조선조 선비들의 눈에 벗어나 잇따른 上疏를 초래하였다. 그중 司諫 尹誠教의 上疏를 보면 비난의 요지는 바로 아직 건강한 肅宗이 자신의 御眞을 그려 강화에 모시고 長寧殿이란 殿號까지 창립한 것은 지나친 일이라는 것과, 강화도로 봉안함에 있어 승정원이나 의정부도 모르게 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것이었다²³⁾.

主管畫師 曹世杰, 同參畫師 張自旭(후대 기록)이 3본을 그려 長寧殿에 봉안하였다²⁴⁾.

이해 7월 肅宗御眞 圖寫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金鎭圭로 하여금 中殿 인현왕후 민씨의 초상을 그리게 하려다 신하들의 반대로 중지한 것이다²⁵⁾. 아마도 이때 자신의 御眞을 그린 것과 동시에 그리려 의도 한 것이었을 것이다.

16) 실록 1690년 10월 27일조 참조.

17) 『影幀修補都監儀軌』(장서각 2-2769) 참조

18) 실록 1695년 4월 3일(갑오)조 참조.

19) 이때 그린 御眞을 19년 후인 1713년 肅宗이 대신들에게 보여준다. 『승정원일기』 1713년 4월 11일 未時條 참조.

20) 실록 1695년 8월 7일조 참조.

21) 실록 1695년 9월 5일자 참조.

22) 趙善美 『한국의 초상화』(열화당, 1983), 121면 참조.

- 23) 실록 1695년 9월 14일조 윤성교의 상소 및 숙종의 대답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윤성교) “전하의 춘추가 정성(鼎盛)하며 壽命이 무궁한데도, 이에 御容으로써 강화도에 봉안하여 殿號를 창립하고 齋廊(참봉)을 두어서 한결같이 慶基殿과 南別殿의 例대로 하였으니, 어찌 크게 이상하다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 강화도로 받들어 감에 있어서는 가까운 승정원과 의정부에서도 전연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正道를 잃고 中道를 잃은 거조에 지나지 않았으니, 혹시 韓休의 諫疏가 있을까 두려워 하여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한휴는 唐나라때 名臣으로 直諫을 잘하여 임금도 두려워 했음) 이 일도 오히려 그러하니 뒤에 대단한 과오가 있다 한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를 안단 말입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깊이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시어 앞날의 경계로 삼으소서” (숙종) “…御容 1本을 강화도에 보관하는 것은 본디 이상스런 일이 아니다. 생각이 깊고 먼 데서 나왔으니, 무엇을 거리어 숨기겠는가? 당초에 궁중으로부터 陪行하여 간 것은 스스로 보는 뜻으로는 驛路의 폐해를 없애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니, 이제 꺼리어 숨기었다고 말함은 크게 뜻밖이다.” 그리고 장년전 장건의 有功者에게 포상한 것에 대한 비난 상소는 同年 9월 5일자에도 보였고, 9월 19일, 11월 27일, 12월 6일조…등에도 계속된다.
- 24) 『승정원일기』는 이해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
- 25) 실록 1695년 7월 27일 丁亥條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이 前應教 金鎮圭에게 명하여 中殿(인현왕후 민씨)의 影子를 그리게 하니, 諸臣이 다투었으나 따르지 않다가 우의정 申翼相이 上筮하여 그 불가함을 논하여서야 정지할 것을 명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下敎하기를, “內間에 影子를 그럴 일이 있으나, 여기에는 中官 畫師의 入參할 곳이 아니니, 宗臣 臨昌君 혼(焜)과 前應教 김진규로 하여금 궁궐안에 출입케 하는 일로 該曹에 말하라” 하였다. 명이 내렸으나 諸臣은 장차 누구의 影子를 그리려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승정원에서 宗臣, 임금의 姻戚이 때아니게 출입함이 뒷날의 폐단이 될것을 가지고 陳啓하니, 답하기를
 “이는 祖宗朝의 故事이다. 人君이 때아니게 사사로이 친척의 신하를 만나보는 것은 진실로 후대의 폐단이 될수 있지만, 일이 있어 출입함이 어찌 사람들이 보고 듣는데 놀랄 것이 있는가?” 하고, 또 하교하기를,
 “조종조에 王后의 影幀을 大內에 간직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반드시 여인의 그림 잘 그리자는 자가 없었으니, 그렇다면 宗戚의 신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내가 일찌기 中殿의 影子에 뜻이 있어, 여러가지로 宗班을 찾아 물었으나 한 사람도 없었다. 임창군 혼으로 하여금 전 응교 김진규와 함께 궁궐안에 출입하여 큰 일을 완성케 하라.” 하였다. 좌승지 宋昌이 또 榻前에서 未安의 뜻을 진달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備忘記안의 影子를 말한 것은 무슨 영자로 보았는가?” 하니, 송창이 말하기를,
 “신 등은 仁敬王后(숙종의 初妃, 김진규의 동생)의 影子로 짐작하여 알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인경왕후는 승하한 지 오래이니, 어떻게 추억하여 모사하겠는가? 김진규는 일찌기 光城府院君(인경왕후와 김진규의 부친)의 화상을 그렸으며, 또 그 사람이 이 일에 익숙함을 들었으니, 매우 숙련한 사람을 시켜 모사케 하고자 하여 宗臣으로 하여금 데리고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다만 한사람의 종신으로 하여금 데리고 들어오게 하는 것은 事體가 미안하니, 至親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北評事 閔鎮厚(인현왕후의 오빠)도 또한 함께 入參할 일로 분부하라.” 하였다. 이는 대개 임금이 中殿의 艱險을 갖추어 맞보고, 아름다운 德이 있으며 허물이 없음을 생각하여 후세의 자손으로 하여금 모두 안색을 우러러 봄을 얻게 하고자 하였으며, 겸하여 또 繪畫와 娛玩의 일을 좋아하는 때문에 이 거조를 한 것이다. 송창이 물러나와서 또 진계하여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玉堂에서 또 上筮하여 다투니, 임금이 數十번으로 下敎하여 따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諭示하고, 또 김진규를 재삼 독촉하였으나 들어올 뜻이 없으니, 推考를 명하였다. 이에 憲臣이 論啓하여 정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또한 윤택하지 않았다. 최후로 우의정 신익상이 上筮하기를,
 “옛 기록에 상고하여도 이미 前聞이 없고 밝게 다스려진 시대에 敕하여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억지로 근거없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講究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진규가 宗臣도 아니고 戚臣도 아니면서 그림 그리는 일을 집행하여 지극히 엄숙하고 지극히 경건한 곳에 가깝게 하는 것은 한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그 禮가 아님을 압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대신의 말이 이에 이르니, 마땅히 정지하리라.” 하였다.

1699(肅宗24)년 비상시 永禧殿 影幀을 피난시키기 편하도록 黑長筒을 만들어 평시에는 別殿에 봉안하도록 하였다²⁶⁾.

1713(肅宗39)년 4월 永禧殿 世祖御眞을 修補하였다²⁷⁾.

1713(肅宗39)년 4월 - 5월에 걸쳐 都監을 설치하여 肅宗御眞을 그렸다. (2본, 원유관본, 익선관본, 長寧殿, 璿源殿 봉안)

이해 御眞圖寫는 李頤命이 長寧殿 御容(숙종21년 曹世杰이 그린 本)이 未盡하니 다시 그려 봉안해야 된다고 한데서 비롯되었다²⁸⁾. 그러나 처음에는 都監을 설치하지 않고 시작하였다. 그래서 草本 2본을 그려 신하들에게 봉심시키자 諸臣들이 모두 盡善하지 못하다 하며 都監설치를 건의 하여 받아들여지게 된다²⁹⁾. 그래서 秦再奚로 하여금 御眞草本을 그리게 하였으나 중대한 일을 秦再奚 한사람에게 專任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하여 다른 畫師들을 불러 試才를 시켜 나온자로 하여금 새로 초본을 그리게 하여 보자고 한다. 이때 方外畫師로 李瑄, 金振汝, 金翊靑, 張泰興 等과, 畫員으로 朴東普, 張得萬 등이 추천되었다³⁰⁾. 그러나 결국은

26) 실록 1699년 윤7월 12일(무신)조 참조

27) 실록 1712년 12월 27일(병자)에 영의정 이유, 예조판서 金鎭圭, 참판 조도빈 등이 영회정 影幀을 봉심한 뒤 世祖影幀의 익선관 부분이 상했으니 都監을 설치하여 修補하되 내년봄 따뜻한 때를 기다려 거행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713년 3월 30일 奉審하겠다는 기록과, 4월 8일 재실에 옮겨내어 修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이때의 일은 『影幀修補都監儀軌』(장서각 2-2771)로 정리되어 있다.

28) 실록 1713년 3월 30일조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藥房 都提調 李頤命이 “長寧殿의 御容은 과연 傳神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나, 千萬歲나 전해갈 本에 어찌 조금이라도 未盡한 곳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그려서 奉安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하자, 임금이 매우 율게 여겼다.

29) 『승정원일기』 1713년 4월 9일조 참조. 그러나 실록에는 4월 8일자에 기록되어 있다.

30) 『승정원일기』 1713년 4월 11일 未時條: “...頤命曰 ……即今日色已晚 頃日草本 出示何如上曰 出示可也 頤命所啓 御容圖寫 事體至重 秦再奚 畫格雖精 不可專委於一人之手 其他有名稱之人 都監堂上 亦有舉(缺) 方外 凡有表表名稱者 爲招聚 各令出草(缺) 得宜矣 而第數多 畫師一時入侍 亦涉煩猥 自都監爲先試才 擇其最優者 入侍出草 何如上曰 其人爲誰 提調金鎭圭曰 此事重大 不可專責一人 故臣在外時訪問 則圖畫署畫員朴東普 其中最優云矣 上曰 此人年老眼昏乎 鎭圭曰 臣曾見其畫 則頗有意思 年不至甚老 而猶可圖畫 但耳聾難與通語矣 上曰 耳聾何傷 鎭圭曰 方外李治者 畫格頗精 曾畫士夫之像而頗善 平陽人金振汝 學畫於曹世杰 亦頗精熟 聞禮曹參判閔鎭遠之言 則天將李如柏畫像 此人摸出 而彼中人 頗稱善云矣 提調閔鎭遠曰 前五衛將李東培 卽李如柏之後孫也 前者小臣赴京時 渠欲隨往 尋見其族 故依願帶去矣 李氏諸族 來見而言 爾國有李如柏畫像 請摸送云 故小臣還來時 使金振汝摸出 而關西守令 給價矣 今番判府事金昌集 入去時付送 則李如柏之旁孫 見而稱歎 極以爲幸云矣 鎭圭曰 京中人 金翊靑善畫 而方流寓光州 此人曾前亦畫士夫像云矣 爲行會本道 使之給馬上送 何如頤命曰 宜使平安 全羅西道 給馬上送矣 上曰 依爲之 鎭圭曰 都提調 頃以禁衛營教鍊官張泰興事 有所進達矣 更無尋問之命 此人則仍而置之乎 亦爲一體試才乎 上曰 予未見其人矣 未知何如頤命曰 似不及於秦再奚 而見其所畫趙泰索畫像 則頗有意味 故敢爲仰達矣 上曰 一體試才 可也 出舉條 又所啓 前縣監鄭維升 卽故臺諫鄭維漸之弟也 此人世代 以畫見稱矣 取考戊辰臚錄 則其時 以前縣監趙之軫 監造官啓下 同爲入參矣 今番節目中 監造官一人 亦當啓下 依戊辰例 以鄭維升啓下 何如上曰 依爲之...”

秦再奚의 것이 定本으로 결정되어, 秦再奚는 나중에 화원으로 堂上에 오르는 영예를 얻는다. 참고로 이때 그려진 肅宗御眞은 영조24년 다시 模寫된다.

主管畫師 秦再奚, 同參畫師 金振汝, 張泰興, 張得萬, 隨從畫師 秦再起, 許倣이었고 監造官은 문인화가 鄭維升이었다.

御容圖寫都監 都提調는 좌의정 李頤命, 提調는 공조판서 金鎭圭, 호조판서 趙泰耆, 예조참판 閔鎭遠 등이었다³¹⁾.

일자별 진행상황

3월 30일 : 李頤命 長寧殿 御容 다시 그리자 함.

4월 8일 : 草本을 奉審시키자 모두 盡善하지 못하다 함.

4월 9일 : 완성된 초본을 제신들이 봉심케 하도록 함.

4월 10일 : 都監 설치, 李頤命 都提調, 金宇杭, 趙泰耆, 金鎭圭 提調로 임명 함.

4월 11일 : 秦再奚 草本 완성, 試才 참여 畫師들 추천함.

4월 12일 : 墨畫 上納, 설채 시작함.

4월 13일 : 설채 끝남. (延祿君 참여), 金鎭圭 더 그려보자 함.

4월 21일 : 秦再奚의 草本 봉심 一定本, 外方畫師들 罷遣

4월 22일 : 秦再奚 御容 全身 한벌 그림.

4월 26일 : 正本 上納

5월 5일 : 익선관본 정본에 설채

5월 6일 : 원유관본 정본에 설채, 2본 완성

5월 9일 : 小本에 쓸 御製文을 표제서사관 金鎭圭로 하여금 쓰게 함.

5월 21일 : 2본에 표제후 대신들 봉심 入大內

5월 22일 : 論賞.

8월 9일 : 御眞 강화도 奉往.

1714(肅宗40)년 肅宗은 畫員 朴東普를 시켜서 두 王子, 즉 延祿君, 延齡君의 초상을 그려 下賜하였다³²⁾. 이때 두 王子의 상을 그려 하사한 것은 肅宗이 8개월간 병상에 있을때 두 王子가 晝夜로 侍側한 노고를 기려서였다³³⁾.

31) 『승정원일기』 이해 기록은 李康七, 「御眞圖寫過程에 대한 小考-李朝 肅宗朝를 중심으로 -, 『古文化』11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73)에 초록되어 있다. 그러나 페이지 수 및 일자에 誤字가 많다. ; 『(肅宗)御容圖寫都監儀軌』(奎章閣13995)

32) 延祿君像은 만20세상으로 관대차림 1폭과 초본 1폭이었다. 이 사실은 실록에는 나오지 않으나 『선원계보』 英祖條에 기록됨 : “一本甲午圖寫 肅廟所賜又有御筆諭書 奉安于統祥宮冷泉亭…”.

33) 『列聖御製』肅宗대왕조 : “諭延祿君延齡君書曰 今予未寧時 爾八朔晝夜侍側之勞 其可忘乎 特爲圖像而與之 命朴東普圖畫 又賜廐馬 至可頌也”, (『근역서화징』 168면 朴東普條 所引). 한편 日帝時 나온 『列聖御製』(열성어제출판소, 1924. 10) 숙종대왕편 「諭祭延齡君文」에는 “...甲年平復之後 命圖汝兄弟之像 手寫諭書而與之 以酬其侍湯之勞 圖傷留在 眞面永隔...”라는 기록이 보이나 畫家가 박동보라는 언급은 없다. 『열성어제』는 여러차 편찬되었기 때문에 원문의 확인이 필요하다.

*1724(경종4)년 延祚君像(영조31세상 초본1폭, 관대차림)을 그렸다. 이때의 일은 당시의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그리고 『선원계보』에는 기록이 없으나 후대의 여러 기록에 의해 확인된다³⁴.

Ⅲ. 肅宗代 御眞圖寫의 意義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肅宗代에는 南別殿을 重建, 永禧殿이라 改名하고 거기에 기왕에 모시던 世祖, 元宗의 御眞 이외에 太祖御眞을 새로 模寫하여 봉안하였다. 그리고 봉안된 世祖御眞을 여러차례 修補하였고, 21년에는 永禧殿 御容에 標識를 써 붙여 의외의 변이 있을 때 구별이 容易하도록 하였다. 24년에는 비상시에 永禧殿 御眞을 봉안해 내기 편하도록 黑長筒을 만들어 別殿에 모시기도 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肅宗代에 이르러 임진왜란과 병자, 정묘호란으로 인해 역대의 御眞과 眞殿이 소실된 이래, 그나마 남아있던 太祖, 世祖, 元宗御眞을 제대로 봉안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太祖御眞은 임란전 5곳에서 봉안하다가 난후 永興 瀋源殿, 全州 慶基殿 2곳에서만 남아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모시지 않을 수 없어 全州本을 模寫해 봉안한 것이다³⁵. 이들 행위들을 임란후 사회체제 전반의 복구, 정비 사업의 하나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肅宗은 이미 돌아가신 先王의 御眞을 模寫하여 봉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감히 자신의 御眞을 그려 강화도에 長寧殿을 창건하여 봉안하였다³⁶.

이는 列朝의 御眞을 그려 봉안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王權의 伸張이라는 숨은 意圖도 개입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왕의 御眞을 모시는 殿號를 開創한 것은 조선왕조를 개창한 太祖外에는 前例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肅宗은 자신의 御眞 圖寫를 몰래, 禁中에서 했으며, 강화도에 봉안할 때에도 外朝에 알리지 않은 채 中使로 하여금 봉양케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은 사헌부와 士臣들의 끈질긴 비판을 초래하였으나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행위의 이면에는 물론 肅宗 자신 그림을 좋아한 성품도 작용하였다. 『列聖御製』 肅宗大王편에는 그림에 관한 詩文이 많으며, 특히 中殿 인현왕후의 초상을 金鎭圭로 하여금 그리게 하려 한 것도 그런 일면이 작용하였다³⁷.

그러나 결국 좌절된 것은 조선후기 성리학 주도정국의 경색된 가치관 때문이었다³⁸.

34) 『승정원일기』 1781(정조5)년 8월 26일조에, 정조가 영조의 御眞圖寫를 열거할 때 “...三十歲甲辰(1724, 경종4년) 寫一本 此則草本...”이라 하였다. 또 同年 9월 1일 辰時條: “...予之今年 卽先大王甲辰寫眞之歲 欲寫一本 似涉張大 而此亦紹述之一事矣”(595면 상). 또 실록 1781(정조15)년 9월 28일조 先朝御眞 圖寫時 服色이 열거된 곳에도 나온다.

35) 歷代 御眞을 받들던 眞殿의 壬亂前後의 변천상황은 趙善美, 『한국의 초상화』(열화당, 1983), 110-126쪽 참조.

36) 趙善美, 전계서, 121면 참조.

37) 앞 주 25의 실록기사에도 숙종이 繪畫와 娛玩을 좋아함이 기록되어 있다.

38) 이때 中殿 閔氏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을 반대한 것은 조선후기에 더욱 엄격해진 內外의 관습이 작용한 것으로, 壬亂 以前에는 王妃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 趙善美, 전계서, 358-370면 참조.

아몽든 신하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나 21년의 御眞圖寫는 결국 39년의 御眞圖寫로 이어졌고, 이때는 대신들과 합의된, 즉 都監을 설치하여 거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성리학적 이념에 투철한 소장신하들은 이때에도 일부 과정을 문제삼아 허식과 張大를 피해야 된다는 비판 上疏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때 상소를 올린 이는 후일 景宗의 丈人이 되는 魚有龜였다³⁹⁾.

이 상소로 인해 都提調 李頤命과 提調 趙泰耆, 閔鎮遠 應教 李晚堅 등이 사직 劄子를 올리는 등 한때 어수선 하였다⁴⁰⁾.

肅宗代의 御眞圖寫는 이후 영조, 정조대 御眞圖寫의 배경이 된다. 이는 임진왜란 이전의 관련기록이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에 英正代에 있어서 참고할 前例는 숙종대뿐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영정대에는 어진도사가 가장 활발하였는데, 특히 영조는 오랜 재위기간동안 매 10년마다 御眞을 圖寫하여 자신의 御眞을 그린 것이 무려 7회에 달하였다. 정조도 이를 繼述하여 10년마다 1번씩 2차례 그리고 그후 1차례 더 그렸다. 그러나 영조, 정조대의 御眞圖寫에는 肅宗代 御眞圖寫時 士臣들과의 긴장이 항상 작용하여, 매번 御眞을 그리면서도 張大와 사치를 피한다는 단서를 꼭 달고 행하였다. 그래서 영조는 자신의 御眞을 그린 7회중 마지막 한번만 都監을 설치하였으며, 정조는 都監을 설치하지 않고 奎章閣에서 그렸다. 肅宗代 御眞圖寫는 壬亂으로 조선전기 御眞이 거의 소실된 이래 조선후기 御眞제작의 본격화를 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성리학적 명분에 투철한 신하들의 견제와 이를 무시하는 國王間 對立도 곁들여져 있다.

39) 실록 1713년 5월 11일조를 보면 正言 魚有龜가 上疏하여 주로 세가지 점을 잘못이라 지적한다. 첫째, 御容을 강화도에 봉안한 것은 본래 아름다운 일이 아닌데 또다시 都監을 설치하여 어용을 그리는 것은 實德을 버리고 허위와 가식에 힘쓰는 것이라는 점, 둘째, 어용을 그린 후 임금의 옆에 親臨한 가운데 2품 이상 관원들로 하여금 침배하라는 것은 과시하는 결과가 되니 간단히 입시, 봉심하되 침배절차는 제거하라는 것, 셋째, 草本까지 五臺山 史庫에 秘藏하는 것은 德業을 후세에 전하는 것만 못하며 구양수의 “스스로 명예를 좋아함이 지나치면 나중에는 무궁한 우려가 된다”는 말과 가깝다는 점이다. 숙종은 어유귀의 상소에 대해 本旨를 상실했다고 답한다. 한편 실록에는 없으나 『승정원일기』 5월 12일조에는 어유귀가 다시 啓事를 올린 것이 보인다. 이때는 어유귀는 일보 후퇴하여 “신의 본뜻은 圖寫한 일 자체가 아니라, 겸양하는 덕에 혐의를 둔 것”이라 하였으나 나머지 두가지 점은 여전히 잘못이라 강력히 주장한다.

40) 실록 1713년 5월 12일, 13일조를 보면 李頤命이 魚有龜의 上疏로 인해 사직 劄子를 올리고, 趙泰耆, 閔鎮遠, 이만견, 심택현 등 도감의 제조와 낭청들도 모두 사직소를 올렸으나 숙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어 5월 14일조를 보면 金鎮圭도 상소의 말미에 “지금 諫臣이 그 떠벌린 일을 비난하고, 게으르고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하였으니, 신은 여기에서 聖主에게 바른 말 하는 이가 있는 것을 우러러 하례하는 바이오며, 有司는 그 죄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더욱 깨닫게 되었읍니다”하며 역시 사직하기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IV. 畫家들에 대한 考察

이 章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록을 통해 나타나는 畫家들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뒷부분에는 畫家들을 姓名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찾아보기 편하게 하였다. (화가개인에 대한 사항은 이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御眞관련 기록을 통해 肅宗代 활약했던 畫家들을 살펴볼 때, 우선 主管畫師들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당대 초상-인물화의 最高手였다. 肅宗14년(1688) 太祖御眞 模寫時 尹商翊(과 그와 경합한 조세걸), 21년 肅宗御眞 圖寫時 曹世杰, 39년 肅宗御眞 圖寫時 秦再奚, 그리고 40년 두 王子(延祚君, 延齡君)의 像을 그린 朴東普(이때는 그 혼자뿐임) 등은 바로 17세기 말-18세기초 朝鮮王朝 肖像畫를 대변했던 名手들인 셈이다. 그러나 尹商翊의 경우 『檣域書畫徵』, 『韓國書畫人名辭書』, 『韓國繪畫大觀』 등 기존의 繪畫史 辭書類에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들중 후대에 뛰어난 초상화가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는 秦再奚였다. 朴東普는 영조 9년에도 영조御眞을 圖寫하였다.

다음으로 同參畫師들인데, 이들도 초상화에 뛰어난 인물들로서 주로 設彩에 능한자가 많았다. 1688년 태조어진 모사시의 許義順, 張自旭, 1695년 숙종어진 圖寫時的 張自旭, 1713년 숙종어진 圖寫時的 金振汝, 張泰興, 張得萬 등인데, 張自旭은 仁同人으로서 張得萬의 부친이다. 張得萬은 다시 그 아들 張敬周와 함께 다음대인 영조대의 御眞圖寫에까지 많은 활약을 하였다. 隨從畫師로는 1688년의 崔碩獻, 1713년의 秦再起, 許倣 등이 있었다.

다음 이 시기 文人畫家로는 단연 金鎮圭를 꼽게 된다. 그는 肅宗의 初妃인 仁敬王后의 오빠로서 39년 공조판서로 肅宗御眞圖寫都監 提調로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산수인물, 彩女, 水仙을 잘 그렸다 하는데, 당대 최고의 문인화가 尹斗緒는 그의 재녀가 儒畫中 第一이라 평하기도 했다. 전서, 예서도 잘 썼는데 오늘날 전하는 회화작품은 알려진 것이 없다. 그 다음으로는 14년 太祖御眞 模寫時 監造官으로 참여했던 趙之耘으로, 滄江 趙涑의 아들로 그 역시 당대 대표적 文人畫家中 一人이다. 肅宗 39년 監造官으로는 鄭維升이 있는데, 그는 형 鄭維漸과 함께 畫名이 있었다.

이상 살펴본 화가들은 바로 肅宗代 畫壇의 概要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비록 문인화가로 尹斗緒(1668-1715), 洪受疇, 沈廷胄 등이 빠져 있으나, 尹斗緒는 이해 봄 海南으로 落鄉하였고⁴¹⁾, 洪受疇, 沈廷胄는 포도에 능한 一技畫家로서 御眞-肖像畫와는 거리가 멀었다. 직업화가로는 肅宗 8년(1682) 通信使를 따라 渡日했던 咸悌健과 肅宗45(1719)년 通信使行으로 渡日했던 咸世輝가 빠져 있으나, 咸世輝는 영조 9년(1733) 英朝御眞(40세상) 圖寫時 同參畫師로 참여하게 된다.

肅宗代에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14년 太祖御眞을 모사한 尹商翊과 39년 肅宗御眞을 圖寫

41) 尹斗緒에 대해서는 李乃沃, 『恭齋 尹斗緒의 學文과 繪畫』(국민대 사학과 박사논문, 1994) 참조.

한 秦再奚가 그 功으로 특별히 堂上에 오른 것이다⁴². 비록 實職이 아닌 명예직이었지만 畫員으로서 堂上에 오른 것은 畫員의 신분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조선시대 초기에 成宗이 御眞圖寫의 功으로 崔涇과 安貴生에게 堂上官을 제수하려다 신하들의 반대로 중지한 예가 있는데, 조선후반기에는 명예직으로 通政大夫, 同樞, 嘉善大夫 등을 준 예가 散見된다⁴³. 畫員로서 받을 수 있는 實職으로는 萬戶, 僉使, 邊將, 縣監 등이 있었는데⁴⁴, 이정도 벼슬도 당시 사대부의 눈에는 분수에 넘치는 것으로 보였다⁴⁵.

다음부터는 이때 활약했던 畫家들을 姓名 가나다順으로 정리하였다. 참고하기에 편하도록 기존의 辭書類 收錄 有無, 수록된 경우 그 페이지를 명기하였다. (『槿域書畫徵』은 ‘징’, 『韓國書畫人名辭書』 ‘사서’, 『韓國繪畫大觀』은 ‘대관’, 『畫寫兩家譜錄』은 ‘보록’으로 약칭하였다. (보록의 경우 『이조회화』별권(지식산업사, 1975)의 페이지 수입.) 그리고 御眞관련 기록들에 보이는 기록들을 ‘관련기록’으로 묶어 정리하였다. 작품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참고로 근래 조선시대 화가들에 대한 정리조사의 시도가 활발한데, 그중 儀軌類를 정리한 아래 論考도 참조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물론 앞으로 儀軌類의 정리가 진행되면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朴廷蕙, 「朝鮮時代 冊禮都監儀軌의 繪畫史的 研究」, 『韓國文化』14(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李成美, 「臧書閣所藏 朝鮮王朝 嘉禮都監儀軌의 美術史的 考察」, 『臧書閣所藏 嘉禮都監儀軌』(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畫家名 앞에 ‘*’표가 있는 것은 英祖, 正祖代에도 계속 활약한 경우로 영정대의 행적도 포함시켰다⁴⁶. 또 書藝家도 포함시켰다.

42) 『승정원일기』 1713년 5월 6일조: “...禮曹啓曰 畫員秦再奚 以圖寫御眞之功勞 特陞堂上 於渠則榮幸極矣 第有拘碍難便之端 卽今畫員 能解畫格者絕少 如秦再奚者 亦不易得 而圖書署畫員加資後不得仍存 古例然矣 在前尹商翊陞堂上後 因渠自願 本曹啓稟仍屬 以終其身矣 今此秦再奚...”, (889면 上左)

43) 예를들어 韓善國(1602-)은 “通政大夫 加資”, 咸慶龍은 ‘同樞’, 앞의 尹商翊(-1713이전)과 秦再奚(-1735이전)는 堂上, 장득만(1684-1764)은 ‘同樞’, 許礪(1736-?)은 ‘嘉善’ (『승정원일기』 1791년 10월7일 未時條(포상)에 “수종화사 嘉善 許礪”), 卞相壁(18세기 후반 활약)은 “加通政” 등의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 통정대부란 문무관 정3품 당상관에 해당하며 가선대부란 종2품 문무관 품계이며, 동지 내지 동추란 동지중추부사로 종2품 품계이다.

44) 萬戶는 各道の 여러 鎭에 붙은 종4품 무관직, 僉使는 僉節制使와 同僉節制使의 준말로 各鎭營의 종3품 무관벼슬. 牧, 府, 郡의 원이 겸임하나 專任인 경우 종4품임. 邊將은 첨사, 만호, 권관의 총칭. 현감은 종6품 수령.

45) 영조실록 1733년 10월 12일조를 보면, 御容模本이 완성된 후 畫員 朴東普(박대진으로 誤記됨) 등을 加資하거나, 東西班職을 除授했다는 기록 뒤에, 史臣이 “御容을 模寫한 노고때문에 갑자기 비천한 무리에 외람된 爵賞을 더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賞을 신중히 하는 도리이겠는가?” 라고 덧붙이고 있다.

肅宗代 御眞관련 記錄에 보이는 畫家, 書藝家들 (성명 가나다順)

金翊胄 (1684 - ?) : 정216, 서서395, 대관629, 보록에 없음. 가례의례 불참
호 鏡巖, 善山水

○ 관련기록

1713(숙종39)년 숙종어진 圖寫時 試才에만 참여하였다. 이때 그는 광주에서 거주하였는데 김진규가 그를 추천해 불러 올라오게 된다⁴⁷⁾. 그러나 진재해가 그린 草本을 쓰기로 결정되는 바람에 草本을 그려보지도 못하고 도로 내려가게 된다⁴⁸⁾.

1735(영조11)년 세조어진 模寫時 동참화사로 참여하였다. 그 당시 그는 광주에 거주하다가 불러 올라와⁴⁹⁾, 앞서 행해진 試才에서 뽑힌 李瑤, 양기성과 함께 다시 取才된다⁵⁰⁾. 그리하여 李瑤와 함께 주관화사의 위치를 두고 경합한다. 이때 정밀하고 숙련되어 일에 만전을 기하려 면 李瑤가 낮고 화법에 生氣가 있는 점은 김익주가 낮다는 평을 듣는다⁵¹⁾. 그리고 신중하고 근신하는 李瑤에 비해 김익주는 성품이 소탈하고, 또 良善한 인물이 아니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조의 뜻에 의해 집필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집필에 임해 세조어진의 山根의 미세한 무늬가 도저히 보이지 않아 할수 없습니다 하여 영조로부터 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집필 주관을 李瑤에게 넘기게 된다⁵²⁾. 點睛時에 영조는 다시 김익주에게 할수 있겠는가 물었으나 점정도 못한다고 하였다⁵³⁾. 그래서 세조어진 모사가 끝날 때까지 김익주는 실제로 별로 한 일이 없었으나 영조의 그에 대한 호감에 의해 도화서 兼教授가 되었다가⁵⁴⁾, 나중에 동반

46) 拙稿, 「英祖, 正祖代 御眞圖寫와 畫家들」, 『서울대학교박물관 연보』6호(1994. 12)에서도 기록함.

47) 주 30 참조

48) 『승정원일기』 1713년 4월 21일 巳時條에 진재해의 草本을 쓰는가, 다시 더 그려보게 하는가 하는 논란중 김익주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이 개진된다. 이이명은 김익주는 김진여만 못하다고 했고, 동부승지 홍우녕은 김익주는 “...위인됨이 그리 영리하지 못하고 또 오래 시골에 있어 이번에 갑자기 출초하게 한들 어찌 진재해보다 낮겠는가”라고 말한다. 그래서 결국 김진여와 함께 말을 주어 도로 내려 보내게 된다.

49)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3일 酉時條, 同 6일 未時條, 19일 午時條, 21일 辰時條에 불러오게 되는 경과가 기록됨.

50)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2일 酉時條.

51)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2일 未時條: “...諸畫師遂退出 上曰 今日來皆一代之善畫也 必不生疎於設彩之法矣... 上曰 李瑤, 金翊胄 必是將來得名之畫 而取其即今精熟者 則無如李瑤 取其將來名盛者 則無如金翊胄矣 廷濟曰 李瑤畫法 誠亦鮮 而金翊胄 則超人一段地矣 上曰 夙宵所憂者 唯恐無畫師 而彼二人者 可謂應時矣 於斯二者 孰取乎 取萬全之道 則李瑤爲勝 取設彩之法 則翊胄爲勝矣 上曰 取其生氣 則可用翊胄 取其萬全 則可用李瑤 而先令渠輩退出者 意有在焉 不欲判斷於渠輩在時耳 興慶曰 尹德熙畫法 聞甚生疎矣 上曰 大臣之意 則李瑤 金翊胄二者 何擇焉 興慶曰 取活動之法 則無如翊胄 而萬全無疑 則莫如李瑤矣 上曰 以今觀之 則李瑤爲勝 而金翊胄活動之畫 捨而不用 豈不可惜 取魯曰 模寫之期 猶有二日 更爲審思取定 無妨矣 上曰 詳審爲之可也...” (40면 上右).

정직을 제수받았다⁵⁶⁾.

이상의 두번의 어진도사와 관련하여 김익주에 대한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그는 지금까지 『근역서화징』에 18세기 후반경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서, 대관도 모두 이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生年이 1684년임은 1735(영조11)년 세조어진 模寫時 동참할 때 52세였다는데서 逆算할 수 있다⁵⁶⁾. 또 그의 생애와 성품에 관해서도 많이 알 수 있다. 그는 서울인이었으나 1713년 당시(30세) 벌써 광주에 오래 거주했다는 점, 그리고 22년후 1735년(52세) 다시 서울로 불러 올라도 역시 광주에서 활약하였다는 점에서 아마도 생애의 대부분을 광주에서 지냈다는 것. 그리고 그 명성이 두번이나 어진도사에 불려올 만했다는 점에서 당시 광주 지방화단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차분하고 침착하기 보다는 다소 소활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다⁵⁷⁾. 즉 그는 畫像을 그리게 한 즉, 조용하지 못했다 하며, 또 서울에 있을 때 혹 宰相家의 畫像을 그릴 때 조금이라도 뜻같지 않으면 문득 버리고 가곤 한다거나⁵⁸⁾, 세조어진 模寫中 畫師들이 불결한 곳에 왕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英祖의 지시에 대해 李瑤는 집에서 齋戒하였으나 김익주는 食前에 혹 출타하기도 하여 영조로부터 소광한 본대라는 평을 받

- 52)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7일 未時條：“…上曰 尹德熙 李瑤 金翊胄 皆入來可也 三人 皆進伏 上曰 卽今當以竹清紙出草 金翊胄 使之執筆可也 此是至重至大之事 專委於汝 汝須專心致之 少勿放過 若能盡誠善模 則自有賞典 放心少忽 則亦當有罰 慎之慎之 今日 庶幾畫出草本乎 翊胄曰 日已晏矣 恐未及爲之矣 上曰 事然矣 模寫未畢 則今日不得還宮矣…(中略)……李瑤曰 山根之上 微有文矣 上親自奉審曰 善觀矣 其上果有文 此則似難模寫……尹德熙曰 此乃山根分介之文也…(中略)……上遂命撤影幀 奉置牀上 展竹清紙於影幀上 使翊胄來模山根之文 翊胄奉審曰 臣不能見得矣 上曰 翊胄拙矣 古者 東陽尉善書 而不能書國家題主 皆如此同矣 趙正萬 進來奉審曰 以臣老眼 猶能喜微見得矣……上 更令翊胄來審 翊胄曰 小臣則終不能見得矣 翊胄 汗出滿面 上曰 此非日熱流汗 乃是拭汗矣 金興慶曰 此誠至重至大之事 而聖上 方親臨奉審 天威咫尺之地 亦安能無忝乎 上曰 日已晏矣……(中略)……上 更令翊胄執筆移摸 翊胄遂模出其文 上見其所模曰 大異元本 翊胄誠有忝矣 使之小退休息 鎮心以來可也……上令翊胄 更來模之 翊胄曰 豈不如李瑤 張得萬之眼乎 然而終不能見得 臣何敢爲之乎 上曰 …… 翊胄曰 山根之文 初不見得 而何敢爲之耶 以見得之人 使之執筆爲宜矣 上曰 然則何必強其所不能乎 卽今則李瑤既見其文 使此人執筆可也 金翊胄之不見其文 誠是異事 其才豈不可惜哉 ……”(43면 하-44면 상)
- 53) 『승정원일기』 1735년 9월 10일 辰時條：“…上召金翊胄問曰 汝能點睛乎 對曰 小臣亦眼昏 不敢爲之上 上笑曰 汝矣 其時之 至今尙在矣 然則得萬點睛可也…”(82면 下左)
- 54)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8일 卯時條 참조
- 55) 『승정원일기』 1735년 9월 19일 포상기록 참조.
- 56)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5일조에 “…上曰 李瑤, 金翊胄 年各幾何 瑤曰 臣年五十九 翊周曰 臣年五十二矣…”(39면 下左)라 되어 있다.
- 57) 『승정원일기』 1735년 9월 2일 巳時條：“…取魯曰 金翊胄則全不爲之上 上曰 金翊胄則乃抱才之人也 以當初執筆之人 未乃見奪於李瑤 故似爲無聊而然耳 且其人物 非雍容之人 眼睛亦未安定矣 取魯曰 翊胄爲人 本非良善之人 用心且不正矣…”(57면 상)

기도 했다⁵⁹). 그리고 세조어진 模寫時 영조가 김익주로 하여금 집필하라고 명하자 세조어진 山根의 미세한 무늬가 안보여 도저히 집필할수 없다 하여, 결국 52세인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고 또 안경까지 쓴 李瑤가 집필하게 된 것도 그의 침착하지 못한 일면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때문에 그는 영조로 부터 겁이 났다는 말을 여러차 듣기도 하였다. 또 그가 그린 <宗親府 契屏>을 영조가 보았다 한다⁶⁰.

○ 작품 : 산수를 잘 그렸다 하는데 남종화풍의 산수 몇점이 전한다. 최근 斗巖 金龍斗 소장의 9폭화첩이 소개되었는데, 여기에는 산수, 화조, 영모, 초충, 어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1730년(47세에 해당) 年記가 있는데 지나치게 깔끔한 工筆을 구사하여 생동감이 좀 떨어지며, 고씨화보, 당시화보를 방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⁶¹.

金鎮圭(1658 - 1716) : 징159, 사서288, 대관305,

자 達夫, 호 竹泉, 光山人, 김장생의 玄孫, 광성부원군 金萬基(1633 - 1687)의 二子, 肅宗妃 仁敬王后(1661 - 1701)의 오빠, 송시열 문인, 肅宗12(1686)년 문과, 官 判書, 산수인물, 彩女, 水仙을 잘 그렸다. 尹斗緒는 그의 彩女를 儒畫中 제일이라 했다. 전서, 예서도 잘 썼다.

『列聖御製』 肅宗大王편에 「題金鎮圭摸畫障子絕句二首」, 「題金鎮圭描寫水墨仙人圖」가 있는데, 肅宗大王은 그의 재능을 天才라 높이 평가하였다.

○ 관련 기록

1688(肅宗14)년 太祖御眞 模寫時 肅宗이 그를 불러 쓰려 했다. 이는 전에 肅宗이 그가 그린 光城府院君 <金萬基像>을 본적이 있는데 아주 방불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都監에 명해 그를 起復(喪制의 몸으로 벼슬자리에 나오게 하는 일) 시켜 쓰려 했으나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쳐 중지하였다⁶².

1695(肅宗21)년 肅宗이 자신의 御眞을 그릴 때 왕비 인현왕후 민씨의 초상을 金鎮圭로 하여금 그리게 하려 했으나 대신들의 심한 반대 및 본인의 거부로 중지하였다⁶³.

58)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2일 酉時條 : “...興慶曰 金翊胄 亦上來矣 當使試模 而兩勳臣畫像 移摸本使之移摸乎 上曰 金翊胄 素善於畫 而百體具備 得命已久矣 取魯曰 臣聞李瑤之言 則翊胄 曾在全羅道時 使之畫像則 不甚從容 此在京時 或模宰相家畫像 而少不如意 則輒棄而去之云矣 上曰 翊胄素有狂態 若非真箇狂人 則必不如是矣 然國家畫像 渠何敢乃爾 予曾見翊胄所畫 其一劃不凡 筆力甚勁 予曾於宗親府契屏 觀之矣...”,

59)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6일 巳時條 : “...取魯曰 日作入侍時 畫師 使不得往來於不潔之處 既承下教 故各別申飭 則李瑤 金翊胄 食後輒皆來會都監 而聞李瑤 在家齊沐 翊胄則食前或出他云矣 上曰 此亦渠疎狂本態耶 取魯曰 以謹慎之道言之 則李瑤爲勝矣 上曰 取其名則翊胄 爲第一矣...” (42면 上左)

60) 주 58참조.

61) 국립중앙박물관, 『金龍斗翁 蒐集文化財 歸鄉特別展』, (1994. 6. 13) 도판 24 - 참조.

62) 『승정원일기』 1688년 3월 7일 巳時條에 “上曰 前持平金鎮圭 人物模寫頗精 而即今在喪 未知何如 曾於庚申年 光城淸城畫像取見 則光城畫像 最爲彷彿 問之 乃鎮圭所模也...” (373면 下右); 同 3월 8일조도 참조; 그리고 肅宗실록 3월 3일조에도 기록됨

1712(肅宗38)년 예조판서로 永禧殿 世祖影幀을 奉審하였고 이어 修補케 하였다⁶⁴⁾.

1713(肅宗39)년 肅宗御眞 圖寫時 工曹判書로 都監提調로 참여하였다. 이때 都提調는 작의정 李頤命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御眞圖寫의 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월 10일 都監이 설치되면서 提調로 임명되고 4월 11일 取材에 참여시킬 화가들로 畫員 朴東普, 方外의 李珣, 金振汝, 金翊靑 등을 추천하였다⁶⁵⁾. 4월 13일 설채법을 참고시키기 위해 김창집이 중국서 그려온 화상을 가져와 畫師들에 보이도록 하기도 하였다⁶⁶⁾. 그리고 標題書寫도 담당하였다⁶⁷⁾.

참고로 金昌業이 김진규의 초상을 그렸음이 후대기록에 보인다⁶⁸⁾.

○ 작품으로는 1680년경 그의 부친 光城府院君 <金萬基像>을 그려, 肅宗이 이를 보고 망불하다고 감탄했다 함. 또 우암 송시열의 77세 화상 3본중 하나를 그렸다 함⁶⁹⁾. 그러나 現存繪畫로서 알려진 것은 없다. 이밖에 필적으로는 碑銘外 서간이 간혹 전한다⁷⁰⁾.

金振汝 : 징175, 사서 317, 대관401,

호 玉崖, 平壤人,

○ 관련기록

김진여는 조세걸의 제자이다. 1713(숙39)년 肅宗御眞 圖寫時 평양에 있다가 김진규의 추천으로 불러와서 張泰興과 함께 試才에 참여, 3번이나 出草하였으나 張泰興과 우열이 없다는 평을 듣는다. 그래서 도로 평양으로 내려 보내게 되었으나 도제조 이이명이 그가 특히 설채에 능함을 들어 조역시키자고 청하여 정본설채에 張得萬, 張泰興 등과 함께 同參畫師로 참여한 후, 그 공으로 東班職을 除授받는다⁷¹⁾. 이때 김진여는 김진규로 부터는 鈍滯하다는 평을 듣고, 이이명으로부터는 김익주 보다 낫다는 평을 듣기도 하였다⁷²⁾.

또 김진여는 어진도사 참여하기 이전에 閔鎭遠의 청으로 평양 武烈祠에 보관중이던 임진

63) 이는 조선후기 엄격한 남녀간 内外의 관습으로 인한 것으로, 조선시대 왕후의 초상에 대해서는 趙善美, 전개서 358-370쪽 참조. 肅宗실록 7월 27일조에 자세히 기록됨(앞의 주 25 참조)

64) 숙종실록 1712년 12월 27일조 및 1713년 4월 8일조 참조.

65) 주 30 참조.

66) 『승정원일기』 1713년 4월 13일 巳時條 : “...鎭圭曰 判府事金昌集 自北京回還後 臣病未往見矣 再昨罷歸時歷見 說到御容圖寫事 因出其北京人所畫 燭下不能詳見 然大抵畫法 與我國有異 而設色或有可以參看處 其草本 使之持來 以示秦再奚 則設彩時或有覺其未覺處矣 上曰 然矣 持來可也...” (858면 下右)

67) 위의 사실들은 『승정원일기』 해당일조 참조; 표제서사는 실록 1713년 5월 9일조 참조, 『승정원일기』 5월 22일조 논상기록에도 나옴.

68)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2일 酉時條에 趙正萬이 少時적에 김창업이 그린 <金鎭圭像>을 보았다고 英祖에게 아뢰고 있다. (29면)

69) 다른 2본은 韓時覺, 金昌業 필 (조선사료집眞해설4, 서화징 所引).

70) 예를 들어 『성균관대 서화특별전』도록(1994) 도판38.

왜란때 왔던 明의 장군 <李如栢像>을 模寫해 1712년 김창집 赴燕時 중국의 후손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稱歎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김진규가 그를 추천하면서 언급하고 있다. 이 사실은 김창업의 연행록에도 기록되어 있다⁷³⁾.

○ 작품으로는 <洪萬朝像>을 그렸다 하며, 現傳作으로는 <申銓(1642-1725)像>('81歲眞', 1722년에 해당. 고적도보와 회화대관에 실림)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耆社契帖>(肅宗45년 4월 耆老宴을 기념해 그린 그림. 1720년, 朴東普, 金振汝, 張泰興, 張得萬, 許倣과 합작)중 일부이다.

朴東普(1663-1735이후) : 징168, 사서306, 대관361, 보록에 없음. 가례도감 불참.

호 靑丘子, 竹里, 開城人, 畫員, 官 知樞.

○ 관련기록

1711(숙종37)년 - 1712년 통신사행으로 渡日하여 <맹호연방매도>(수목산수)를 그렸다(『고화비고』)

1713(숙종39)년 숙종어진 圖寫時 51세의 나이로 試才에 참여 하였다. 이때 주관화사는 秦再奚였는데 그의 초본이 완성되었으나 한사람에게 전임시키기 곤란하다 하여 能畫者들을 불러 試才시켜 보자고 논의하던 중 화원으로서 박동보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이때 영조가 박동보는 혹 늙어 눈이 흐리지 않나 묻자, 눈은 괜찮으나 귀가 멀었다 하자 그것은 상관없다고 하여 시재에 참여하게 된다⁷⁴⁾.

1714(숙종40)년 숙종의 명을 받아 延祔君, 延齡君像 圖寫하였다⁷⁵⁾.

1721(경종1)년 (英朝王世弟受冊時) 책례도감에 참여하였다.

1725(영조1)년 (眞宗世子受冊時) 책례도감에 참여하였다.

1733(영조9)년 영조어진 圖寫時 주관화사였다. 이때는 숙종 40년 숙종이 그려 하사했던 영조 21세상(延祔君像)의 御服을 고쳐 그리고, 또 새로 40세상을 그렸는데, 前記 潛邸時 21세상이 바로 박동보에 의해 그려진 것이었다. 이때의 기록은 소략하나 圖寫가 끝난후 포상기

71) 『승정원일기』 1713(숙종39)년 4월22일 辰時條에 “願命曰, 今此正本施彩之役 不可獨委於秦再奚 必有助役者 後可以速完 故頃日入侍畫師二人 使之助役 而皆不慣於施彩 畫師中張得萬 頗精於施彩云 關西畫師金振汝 曾前畫人之像矣 見其所畫洪萬朝像 則不但善爲模寫 其施彩極精 昨日以還爲下送之意陳達 而今姑仍置 使之助役 張泰興 亦使之同爲施彩 何如 上曰 依爲之”.

72) 『승정원일기』 1713년 4월 21일 巳時條에 김진규가 영조에게 “김진여는鈍滯한 인물이라 私人的 化상을 그릴 때도 오래 걸립니다. 이번에는 서둘러서 그 재주를 다하지 못했을것입니다”라고 아뢰다. 또 같은날조에 이이명이 “김익주는 김진여만 못하다는데 신이 그의 그림을 보니 그렸읍니다”라는 대목도 보인다.

73) 앞주 30(『승정원일기』 1713년 4월 11일 未時條), 또 『가재연행록』에도 기록(『근역서화징』 金振汝條 所引)

74) 주 30 참조.

75) 주 33 참조.

록이 있다⁷⁶⁾.

1735(영조11)년 세조어진 模寫時에도 試才에 참여하였다. 이때 그는 73세의 고령이었는데 모사에 앞서 영회전 세조어진을 봉심할 때 (이때 장득만, 양기성과 함께 입시) 영조가 그의 의견을 묻기도 하였다⁷⁷⁾. 또 그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눈이 밝았다 한다⁷⁸⁾. 한편 위의 기록에서 지금까지 生沒年 未詳이었던 박동보의 출생이 1663년임을 逆算할 수 있다. 이때 試才에는 화원 장득만, 양기성과 지방화사 양희맹, 와서별제 신영 등이 함께 참여했는데 李珣와 양기성이 뽑힌다. (시재는 8월 20일 시행됨) 그런데 이때 試才결과를 이야기 하는 中, 박동보의 模本은 타인들과 전혀 다르다 하자 영조는 “이는 제 하고자 하는데로 따른 것이며, 고집의 소치”라는 평을 한다⁷⁹⁾. 이는 박동보가 晩年에 아주 개성적인 화풍을 구사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며, 현재 서강대박물관 소장의 산수병풍과 묵매도의 화풍을 설명해 준다. 박동보 만년의 이러한 특이한 화풍은 그가 51세때 영조어진 도사시 이미 귀가 어두웠다는 사실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나 추측된다. 50대초에 이미 귀가 먹어 70대의 노경까지 작품활동을 했으니 말이다.

○ 작품으로는 서강대박물관 소장 <산수10첩병풍>과 <묵매도>가 있는데, 둘다 아주 변형이 심한 특이한 작품이다. 간송미술관 소장 <舟遊觀岩>은 선묘위주의 남종화 소품이다. (『간송문화』 47-13)

宋彰燁 : 장, 사서, 대관, 보록에 없음. 嘉禮, 冊禮都監불참

○ 관련기록

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 없으나, 1688(肅宗14)년 太祖御眞 模寫時 호조 판서 柳尙運의 추천으로 試才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⁰⁾. 曹世杰의 제자로 3월 19일 조세결과 함께 上京해 취재에 참가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기록에 ‘幼學 宋彰燁’이라 되어 있어 士人으로서 曹世杰에게 그림을 배운것이 아닌가 싶다⁸¹⁾. 또 曹世杰과 함께 평양에서 불러온 것으로 보아 평양인으로 보인다.

76) 『승정원일기』 1733년 10월 12일조 : “下備忘記于俞彦通曰 昔年恩賜 不敢泯焉 于今御服 宜可更也 重修影子 圖本已成 依乙亥年例 畫員朴東普 加資 同參畫員咸世輝 梁箕星 東班職除授 奏應會 令西銓相當職除授”(75면 下右)

77) 『승정원일기』 1735년 7월 28일 午時條에 “移畫는 심히 어려운데 竹淸紙로 모화해야만 틀리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78)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2일 酉時條에 “...金興慶曰 朴東普七十三 而不用眼鏡矣……”(29면 上左)

79)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2일 酉時條에 “...取魯曰 誠如上教 而若論其次 則梁希孟 亞於李珣耳 朴東普則似難任事矣 上曰 朴東普之所模 獨異於他人 蓋其自用己意也 此亦固執所致耳……”(28면 下)

80) 『승정원일기』 1688년 3월 7일 巳時條 : “...尙運曰 又有宋彰燁者 乃世杰弟子 而年少眼明 必招兩人取材後 可以用之矣...”, 373면 上右

申範華(1647-?) : 징154, 사서276, 대관301, 보록에 없음.

자 允明, 平山人, 兄 儀華(1637-1662)도 그림을 잘 그렸다 함. 肅宗元年(1675) 進士, 官 郡守, 善畫

○ 관련기록

1688(肅宗14)년 太祖御眞 模寫時 黃海道 遂安郡守로 있었는데 畫法이 精妙하다 하여 불러 올라왔다⁸²⁾. 그러나 試才에 참여하여 조세걸, 윤상익, 유종건의 順으로 等第되자, 農事時節에 守令을 오래 붙들어 둘 수 없다 하여 4월 13일 내려 보내었다⁸³⁾. 이때 主管은 尹商翊, 同參은 許義順, 張自旭이었다.

○ 작품 : <女俠圖>선면, (국립박물관, 회화대관 166)

劉宗健 : 징, 사서, 대관에 없음. 冊禮都監 불참
畫員

○ 관련기록

1688(肅宗14)년 太祖御眞 模寫時 試才에 참여하였다⁸⁴⁾.

이때 조세걸, 윤상익에 이어 3위로 等第되어 앞의 두사람이 각기 正本을 모사할 때 참찬관 崔錫鼎이 유종건도 추가로 참여시키자고 청했으나 숙종은 肉色을 상당히 잘 못그렸다 하여 참가시키지 않았다⁸⁵⁾.

1696(숙종22)년 王世子(후의 景宗)嘉禮都監에 참여하였다.

尹商翊(? - 1713이전) : 징, 사서, 대관, 보록에 안나옴. 嘉禮都監 불참

○ 관련기록

畫員으로 1688년 太祖御眞 模寫時 主管을 맡을 정도로 초상화에 뛰어났으나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때의 太祖御眞 模寫時 試才에서는 조세걸 다음 2등으로 等第되었으나 年少하고 눈이 밝아 특별히 집필케 되었으며, 두사람 모두 模寫本을 그려 결국 윤상익의

81) 『승정원일기』 1688년 3월 19일조 : “...又以影幀模寫都監郎廳 以都提調意啓曰 平壤前僉使曹世杰 幼學宋彰燁等 既已上來 令該曹給料 何如 傳曰允...”, (390면 下左) 이어 같은날 申時條 : “...壽興又曰 畫師善手 求諸方外 亦不易得 曹世杰, 宋彰燁, 韓時覺, 許義順, 尹商翊, 劉宗健 (劉宗恪이라 誤記) 六人 少精於模寫 此六人 皆爲取材 而光山副正 亦有模寫之才云 使之同參而趙之軫 則既有庭訓 而善於繪事 此人最好矣...”, (391면 下左)

82) 『승정원일기』 1688년 3월 15일조 : “李玄錫 以影幀模寫都監郎廳 以都提調意啓曰 影幀模寫事體至重 不可不廣聚曉解畫法之人 而遂安郡守申範華 自少精於畫法 又長於模寫云 卽爲分付本道 使之邇月旬前 上來何如 傳曰允”, (386면 左下)

83) 『(太祖)影幀模寫都監儀軌』1책(奎章閣13978, 13979, 14921) 「啓事秩」 4월 13일 都監啓曰 “影幀模寫畫師 既已擇定 遂安郡守申範華 當此農時 不可久留 卽令還爲下去何如 答曰 知道”

84) 『승정원일기』 1688년 3월 19일 申時條 참조

85) 『(太祖)影幀模寫都監儀軌』1책(奎章閣13978, 13979, 14921) 啓事秩 4월 10일 “都提調 金壽興 引見入侍時……(中略)……崔錫鼎曰 畫師二人各自模寫事 既已定奪 而未可必其盡善 又添一人 使之模寫何如 上曰 都監等第中 劉宗健爲第三 而肉色頗誤 不必強入於三人之列矣”

것이 正本으로 채택되었다. 이때의 공으로 특별히 당상에 올랐으나, 自願에 의해 그대로 도화서에 머무르다 1713년 이전에 죽었음이 확인된다⁸⁶⁾.

1690(숙종16)년 (景宗世子受冊時) 冊禮都監에 참여하였다.

1690년 (玉山大嬪陞后受冊時) 冊禮都監에 참여하였다.

李倝(1640 - 1700) : 징, 대관에 없음, 사서269,

자 和叔, 호 最樂堂, 선조 12子 仁興君 瑛의 次子, 封號 朗原君, 형인 朗善君과 함께 전서, 예서를 잘 썼다 함.

○ 관련기록

肅宗14년(1688) 笏子를 올려 太祖御眞을 模寫할 것을 청하여 행해졌다⁸⁷⁾.

李悛(1637 - 1693) : 징150, 사서265, 대관295

자 碩卿, 호 觀瀾亭, 선조 12子 仁興君 瑛의 長子, 封號 朗善君, 『大東金石帖』을 만든 서예가로 유명, 또 그의 書畫帖에는 공민왕의 <千山大獵圖>, 安堅, 이정 등의 작품이 있었다 한다.

○ 관련기록

1688(숙종14)년 全州 慶基殿에 봉안된 太祖御眞을 모셔와 모사하였는데, 모사후 9월 10일에 朗善君 李珣로 하여금 舊本을 모시고 전주로 돌아가라 하였다. 그러나 이때 명령은 실행되지 않았고, 舊本은 이듬해 1월 19일에야 慶基殿으로 還奉되었다⁸⁸⁾.

* 李珣(1677 - ?) : 징, 대관, 보록에 기록없음. 사서312(이름만 기록), 가례 및 책례도감 불참.

○ 관련기록

1713(숙종39, 계사)년 숙종어진 圖寫時 試才에만 참여하였다. 이때 그는 김진규에 의해 方外畫師중에는 가장 먼저 추천받았다⁸⁹⁾.

1735(영조11)년 세조어진 模寫時 주관화사였다. 이때 李珣는 連山(現 忠南)에 거주하였는데 도제조 김홍경의 추천을 받아 양희맹과 함께 불러 올라왔다⁹⁰⁾.

그래서 8월 19일 상경하여 20일 화원 박동보, 장득만, 양기성과 지방화사 양희맹, 와서별

86) 이때의 論賞에는 “加資”라고만 되어 있으나(주12참조) 後代의 기록으로 堂上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 1713년 5월 6일조: “禮曹啓曰 畫員秦再奚 以圖寫御眞之功勞 特陞堂上 於渠則榮幸極矣 第有拘碍難便之端 卽今畫員 能解畫格者絕少 如秦再奚者 亦不易得 而圖畫署畫員 加資後不得仍存 古例然矣 在前尹商翊陞堂上後 因渠自願 本曹啓稟仍屬 以終其身矣 今此秦再奚 依尹商翊例 欲爲仍置本署 而渠以爲 畫員雖甚未末 旣陞堂上之後 爲食斗料 破格仍存 與生徒一 取材事 不當 亦甚疲軟云 而願離本局 渠之情願如此……”, (889면 上左 -하)

87) 주 4 참조.

88) 앞의 주 13 참조.

89) 주 30 참조.

제 신영 등과 함께 試才를 치른다. 8월 22일 試才결과 李殆와 양기성이 뽑힌다⁹¹⁾.

처음 試才에서 뽑힌 李殆와 양기성은 다시 試才를 치르는데 이때 늦게 상경한 김익주도 함께 試才를 치른다. 試才결과 李殆와 김익주가 경합을 벌이다가 영조가 김익주로 하여금 집필을 맡기려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 대로 김익주는 겁아 나서인지 집필을 못하고 李殆가 집필주관을 맡게 되었다. (김익주 부분 주 참조) 모사과정에서 上繪時 李殆는 龍顔과 龍身범위를 맡아 상초하였고 동참화사 장득만은 곤포홍배를 맡았다. 設彩時에도 李殆가 용안을, 다른 곳은 양희맹, 양기성, 장득만이 맡았다⁹²⁾. 그러나 채색도 끝난 후 여러 곳을 수정하고 點睛하는 일은 눈이 밝고 채색에 능한 장득만이 맡았다⁹³⁾.

어쨌든 李殆는 세조어진 모사에 가장 큰 공을 세워 나중에 스스로 東班正職을 얻고자 희망하다가 가사되었다⁹⁴⁾.

李殆는 지금까지 李殆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즉 그가 영조11년 세조어진 模寫時 주관화사였을 때 실록에 이름이 '李殆'로 誤記되었기 때문에 『한국회화대관』에 이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⁹⁵⁾. 『한국서화인명사서』에는 이름은 바르나 성명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李殆의 생몰년도 미상이었으나 생년이 1677년임은 1735(영조11)년 세조어진 模寫時 59세였다는데서 逆算할 수 있다⁹⁶⁾. 李殆는 숙종39년 숙종어진 圖寫時 試才에만 참여하였으나 영조11년 세조

90)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3일 酉時條：“上曰 …而諸臣 曾以趙榮祐尹德熙之名仰達矣 此外亦有精於畫法者乎 諸臣 如有所知者 進達 可也 興慶曰 曾見李殆 善爲畫像矣 上曰 金翊胄亦在乎 興慶曰 李殆, 金翊胄 俱在湖南矣 顯命曰 此外 湖南畫師甚多 而其中 梁希孟最優矣 上曰 宜寧縣監趙榮祐使之斯速上來 尹德熙付軍職冠帶常仕, 李殆, 金翊胄, 梁希孟 亦令湖南道臣 給馬上送事分付; 한편 李殆가 연산에 거주했음은 『승정원일기』 8월 18일 午時條에 지방화사들을 재촉하는 부분에서 보인다. “…取魯曰 外方畫師之至今寂然 誠爲怪訝 自上屢下催促之教 臣自本曹 行開催督 而尙不上來 其中李殆則居連山云 連山不過四日半程 而今至十三日不即起送者 誠爲寒心 而宜寧縣監趙榮祐催促之下 亦未上來矣 上曰 畫師輩之在家 未可必 然太爲遲滯 誠極寒心 三道監司從重推考 更令別爲催促上送事 分付可也”.

91)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2일 酉時條에 “…興慶曰 完南畫像 則李殆所模似勝 延陽畫像 則梁箕星所模似勝矣 上曰……取魯曰 臣等 見其模畫 則李殆筆法 頗有精神 而最勝於其中矣 上曰 李殆似已老 而其爲人則剛勁矣 取魯曰 誠如上教 而若論其次 則梁希孟 亞於李殆耳 朴東普則似難任事矣 上曰 朴東普之所模 獨異於他人 蓋其自用己意也 此亦固執所致耳 予心爲延陽畫像 則梁箕星所模稍勝 而完南畫像 則李殆梁希孟所模 稍勝矣 卿等所見 亦如是 可謂意思同也…”(28면 下)

92)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9일 酉時條및 9월 2일 巳時條 참조.

93) 『승정원일기』 1735년 9월 10일 辰初 “…上問於李殆曰 汝之眼力 終不可點睛乎 李殆曰 雖着眼鏡 終不如明眼矣……取魯又曰 李殆少有疏率之病 得萬則慎重矣 上曰 李殆雖疎率 畫法則當世無可及者 李殆曰 小臣實眼昏 使得萬點睛 似好矣 上召金翊胄問曰 汝能點睛乎 對曰 小臣亦眼昏 不敢爲之 上笑曰 汝怯矣 其時之怯至今尙在矣 然則得萬點睛可也…”(82면 下左)

94) 『승정원일기』 1735년 9월 10일 辰初條, 9월 19일조 참조.

95) 실록 1735년 8월27일조, 『한국회화대관』 382면 참조

96)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5일조에 “…上曰 李殆, 金翊胄 年各幾何 殆曰 臣年五十九 翊胄曰 臣年五十二矣…”(39면 下左)라 되어 있다.

어진 模寫時에는 주관화사였다. 영조11(1735)년 당시 그는 초상화로 이름이 높았던 듯, 박동보, 장경주, 양기성 등 화원들 외에 지방화사들중 가장 먼저 추천을 받았다. 당시 그는 59세의 나이로 老眼으로 안경을 써야 했으나 건강했던 듯 剛勁하다는 말을 들었다. 또 성품이 경박하거나 잡스럽지 않고 중용했다 하며, 서울 觀象監峴에 살다 충청도 連山으로 이사가서 산지 오래 되었다 한다⁹⁷⁾.

또 영조로부터 畫技를 인정받아 “필시 장래 유명해질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김익주와 경합을 벌일 때 정밀하고 숙련된 화법으로 만전을 기하려면 (李殆가) 낫다는 평을 들었다⁹⁸⁾.

李殆의 침착하고 성실한 태도는 영조가 어진모사중 화사들이 불결한 곳에 왕래하지 말라고 당부한 지시에 대해 김익주는 식전에 흑 출타하기도 하였으나 李殆는 집에서 재계하였다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⁹⁹⁾.

○ 소개된 작품 없음

李河 : 징, 사서, 대관에 안나옴.

○ 관련기록

처음 발굴되는 宗室출신 화가로 화법이 정묘하고 模寫에 뛰어났다 한다. 肅宗14년 太祖御眞 模寫時 光山副正이었다.

1688(肅宗14)년 太祖御眞模寫時 참여시키기로 하였으나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¹⁰⁰⁾.

任相元(1638 - 1697) : 징, 사서, 대관에 안나옴.

자 公輔, 호 恬軒, 官 判書, 글씨를 잘 썼다.

○ 관련기록

肅宗21(1695)년 永禧殿 列聖御容에 표지가 없어 의외의 변이 있을 때 구별키 곤란하다

97)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2일 酉時條에 李殆, 박동보, 김익주 등에 대한 영조와 신하들의 評이 기록되어 있다. “…朴東普等 皆以此退出 上曰 李殆不甚衰老矣 取魯曰 其爲人 本來 剛勁 亦不浮雜 而安舒從容矣 興慶曰 朴東普七十三 而不用眼鏡矣 洪相賓曰 李殆曾在 觀象監 峴 而往居湖西 今已久矣 興慶曰 金翊青 亦上來矣 當使試模 而兩勳臣畫像 移摸本使之移摸乎 上曰 金翊青 素善於畫 而百體具備 得命已久矣 取魯曰 臣聞李瑜之言 則翊青 曾在 全羅道時 使之畫像則 不甚從容 此在京時 或模宰相家畫像 而少不如意 則輒棄而去之云矣 上曰 翊青素 有狂態 若非眞箇狂人 則必不如是矣 然國家畫像 渠何敢乃爾 予曾見翊青所畫 其一劃不凡 筆 力甚勁 予曾於宗親府契屏 觀之矣……”(29面 上左)

98) 김익주 부분 참조.

99)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6일 巳時條에 “…取魯曰 日作入侍時 畫師 使不得往來於不潔之處 既承下教 故各別申飭 則李殆金翊青 食後輒皆來會都監 而聞李殆在家齊沐 翊青則食前或出 他云矣 上曰 此亦渠疎狂本態耶 取魯曰 以謹慎之道言之 則李殆爲勝矣 上曰 取其名則翊青 爲 第一矣……”(42면 上左)

100) 『승정원일기』 1688년 3월 19일 조 : “又以影幀模寫都監郎廳 以提調意啓曰 光山副正河 畫法 精妙 而模寫之才 最所長云 使之來詣都監 與諸畫師 同議模寫 何如 傳曰允”, 391면 上右, 이날 한번 더 언급된 이후 더이상 그에 대한 언급 없음.

하여 3개실 影幀에 표제를 써 붙였는데, 이때 任相元이 쓴 것 같다. 이는 肅宗39년 肅宗 자신의 기억에 의한 것이다¹⁰¹⁾.

* 張得萬(1684 - 1764) : 징172, 사서312(별내용 없음), 대관361, 보록185, 187, 가례 및 책례도감 불참

자 君季, 호 睡隱, 畫員, 官 同樞, 仁同人, 自旭의 子, 敬周의 父, 司正 子晟의 侄, 교수 許哲의 사위

○ 관련기록

1713(숙종39)년 숙종어진 圖寫時 동참화사로 참여하였다. 이때 주관은 진재해였는데 正本設彩時 助役으로 설채에 능한 장득만(김진여, 장태홍과 함께)을 동참시켰다¹⁰²⁾. 이때의 공으로 동반직을 제수받았다¹⁰³⁾.

1718(숙종44)년 왕세자(景宗)가례도감에 참여하였다.

1735(영조11)년 세조어진 模寫時 동참화사로 참여하였다. 예조판서 김취로가 그를 근래 화원중 나온 자로 추천하였다¹⁰⁴⁾. 이때 장득만은 52세의 노련한 화원으로 모사하기 前 영희전에 모셨던 세조어진을 봉심할 때 영조가 어진의 상태와 모사방법 등을 물었으며¹⁰⁵⁾, 상의 제조 김재로는 모사에 쓸 絹本을 짜서 장득만에 보여주며 의견을 물어 보았다¹⁰⁶⁾. 이처럼 장득만은 당시 도화서안에서 대접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월 20일 試才에서는 화원 양기성과 방외의 李殆가 뽑혔다. 그리고 두번째 試才에서는 李殆와 김익주가 주관을 경합하고, 장득만은 양기성, 양희맹과 함께 수종화사가 되었다¹⁰⁷⁾. 그러나 나중에 장득만이 설채와 수정에 큰 역할을 하고¹⁰⁸⁾, 點睛도 담당하여¹⁰⁹⁾, 포상시에는 동참화사로 동반정직을 제수받았다¹¹⁰⁾.

1748(영조24)년 숙종어진 模寫時 65세의 나이로 동참화사로 참여하였다. (이때 아들 장경

101) 『승정원일기』 1713년 5월 5일 巳時條: “李頤命曰 影幀紅紗處題字 從容奉審 諸臣皆以爲御筆 (數字缺) 上曰 非御筆也 前日朴泰尙爲禮判時 以爲影幀宜有標題 (數字缺) 朝臣中善書者書之 自此第一室 第二室 第三室 皆有標題矣 上又曰 其時任相元 似寫標題而今已多年 未能的記矣. (885면 下左). 그러나 이때 박태상은 예조판서가 아니라 知經筵이었다. 유감스럽게도 肅宗21년도는 『승정원일기』가 없어 더이상 확인할 수 없다.

102) 『승정원일기』 1713년 4월 22일 辰時條: “...頤命曰, 今此正本施彩之役 不可獨委於秦再奚 必有助役者 後可以速完 故頃日入侍畫師二人 使之助役 而皆不慣於施彩 畫師中張得萬 頗精於施彩云 關西畫師金振汝 曾前畫人之像矣 見其所畫洪萬朝像 則不但善爲模寫 其施彩極精 昨日以還爲下送之意陳達 而今姑仍置 使之助役 張泰興 亦使之同爲施彩 何如 上曰 依爲之...”

103) 『승정원일기』 5월 22일 조: “...主管畫士 前司果秦再奚(再雲으로 誤記됨)加資, 同參畫士 閑良金振汝, 教鍊官張泰興, 前司果張得萬 東班職除授 隨從畫士...”, (916면 上)

104) 『승정원일기』 1735년 7월 28일 午時條

105) 『승정원일기』 1735년 7월 28일 午時條

106)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18일 辰時條

107)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5일 未時條

주가 주관화사였음. 장경주 참조). 이때에도 장득만은 화원중 元老로서 특히 설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영조도 여러가지 일을 장득만에 맡고 있다¹¹¹⁾. 또 눈부분의 泥金北彩도 장득만이 담당하였다¹¹²⁾.

장득만은 신중하고 침착한 성품으로 특히 채색에 능했다고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¹¹³⁾.

또 흥배같은 섬세한 무늬나 泥金, 金箔을 쓰는 일에 가장 뛰어났던 듯 하다¹¹⁴⁾.

그래서 영조11년 세조어진 模寫時에도 李殆가 주관화사였으나 설채 수정과 가장 중요하다 할수 있는 點睛은 張得萬이 담당하였다.

○ 작품

<耆社契帖> (1720년, 朴東普, 金振汝, 張泰興, 許倬과 합작), <耆社慶會帖> (1745년

108) 『승정원일기』 1735년 8월 29일 酉時條를 보면 上稍時 장득만이 곧포흥배를 그렸는데 그 무늬가 李殆만 못지 않다는 칭찬을 받는다; 또 9월 2일 巳時條를 보면 예조판서 김취로가 장득만의 設彩를 칭찬하자 영조가 도화서 화원이 과연 설채를 잘한다고 대답한다(…取魯曰 張得萬 善爲設彩矣 上曰 局方畫師設彩 則果熟矣…取魯曰 以土黃和用設彩 而龍顏設彩 則使李殆 專主爲之 而他處設彩 使張得萬爲之何如 上曰 袞衣龍紋 張得萬似勝於他人矣 方外畫師設彩則甚生疎矣 取魯曰 李殆自曰 模寫龍顏之時 運筆甚易 若有物引去 自然神助而善成矣 此言似爲浮許 而模本則極盡無缺 萬分多幸矣 廷濟曰 張得萬善畫矣 上曰 張得萬設彩 則可謂一手矣 至於畫格 安可謂善手哉 袞服胸背之畫 無出張得萬之右矣…)

109) 『승정원일기』 1735년 9월 10일 辰初條에 金取魯가 張得萬의 功이 李殆만 못지않다 하자 英祖가 동참으로 기록하라고 지시한다, 이어 點睛時에도 김취로는 눈이 어두운 李殆보다 신중하고 눈밝은 장득만에게 맡기자고 칭하여 장득만이 점정하게 된다.”…上問於李殆曰 汝之眼力 終不可點睛乎 李殆曰 雖着眼鏡 終不如明眼矣……取魯又曰 李殆少有疏率之病 得萬則慎重矣 上曰 李殆雖疎率 畫法則當世無可及者 李殆曰 小臣實眼昏 使得萬點睛 似好矣 上召金翊胄問曰 汝能點睛乎 對曰 小臣亦眼昏 不敢爲之 上笑曰 汝怯矣 其時之怯至今尙在矣 然則得萬點睛可也”, 82면 下左, 이어 같은날 申時條에도 장득만이 다시 가채, 수정하였음이 기록됨.

110) 『승정원일기』 1735년 9월 19일 조

111) 예를 들어 『승정원일기』 1748년 2월 3일 午時條에는 초본의 面部 模寫時 주위의 신하들을 물리나 조용하게 한 연후에 그리도록 하자는 건의에 대해 영조가 장득만의 의견을 묻자, 득만은 “私家の 畫像 모사시에도 중용하게 하니 소란스럽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112) 『승정원일기』 1748년 2월 5일 卯時條.

113) 『승정원일기』 1713(숙종39)년 4월22일 辰時條에 “願命曰, 今此正本施彩之役 不可獨委於秦再奚 必有助役者 後可以速完 故頃日入侍畫師二人 使之助役 而皆不慣於施彩 畫師中張得萬 頗精於施彩云 關西畫師金振汝 曾前畫人之像矣 見其所畫洪萬朝像 則不但善爲模寫 其施彩極精 昨日以還爲下送之意陳達 而今姑仍置 使之助役 張泰興 亦使之同爲施彩 何如 上曰 依爲之”, 또 1735(영조11)년 9월2일 巳時條에도 “…取魯曰 張得萬 善爲設彩矣 上曰 局方畫師設彩 則果熟矣……取魯曰 以土黃和用設彩 而龍顏設彩 則使李殆 專主爲之 而他處設彩 使張得萬爲之何如 上曰 袞衣龍紋 張得萬似勝於他人矣 方外畫師 設彩則甚生疎矣 取魯曰 李殆自曰模寫龍顏之時 運筆甚易 若有物引去 自然神助而善成矣 此言似爲浮許 而模本則極盡無缺 萬分多幸矣 廷濟曰 張得萬善畫矣 上曰 張得萬設彩 則可謂一手矣 至於畫格 安可謂善手哉 袞服胸背之畫 無出張得萬之右矣” 또 앞의 주들 참조.

완성, 張得萬, 장경주, 정홍래, 조창희 합작) 등이 전한다.

張自旭(1639-1718(81세) 이후) : 징, 사서, 대관에 만나움, 보록187.

仁同人, 畫員 張得萬(1684-1764)의 父, 張敬周(1710-)의 祖

○ 관련기록

1688(肅宗14)년 太祖御眞 模寫時 同參畫師로 참여하여 東班正職을 除授받았다¹¹⁵⁾.

1690(肅宗16)년 (景宗世子受冊時) 冊禮都監 참여하였다.

1690(肅宗16)년 (玉山大嬪陞后受冊時) 冊禮都監 참여하였다.

1694(肅宗20)년 (肅宗인현왕후中宮殿受冊時) 冊禮都監 참여하였다.

1695(肅宗21)년 肅宗御眞 圖寫時 同參畫師로 참여하였다.

1696(肅宗22)년 王世子(후의 景宗) 嘉禮都監 참여하였다.

1718(肅宗44)년 王世子(후의 景宗) 嘉禮都監 참여하였다.

숙종14년 太祖御眞 模寫時, 숙종21년 肅宗御眞 圖寫時 동참화사로 참여하였다. 이 두번의 어진관련사는 『승정원일기』의 기록이 소략하여 구체적 행적은 알 수 없다. 그의 아들과 손자도 後代에 御眞圖寫에 많은 활약을 하여 3대가 御眞圖寫에 연이어 참여하였다.

張泰興 : 징, 사서, 대관, 보록에 만나움, 嘉禮, 冊禮都監 불참.

처음 발굴되는 화가이다.

○ 관련기록

1713(肅宗39)년 肅宗御眞 圖寫時 同參畫師로 참여하였다¹¹⁶⁾.

이때 그는 禁衛營教鍊官으로 있었는데 都提調 李頤命이 그가 그린 <趙泰采像>이 자못 좋다고 하여 추천한 것이다. 그래서 평양인 金振汝와 함께 試才했으나 우열이 없어 더 이상 出草하지 말고 이후 秦再奚에게 전부 맡기게 된다¹¹⁷⁾. 그후 설채시 張得萬, 金振汝와 함께

114) 『승정원일기』 1735년 9월 8일 申時條에 “興慶曰 影幀有龍金椅 今日爲之 而金色頗似未洽足矣 上曰 以水滿瑚磨之乎 興慶曰 然矣 問諸畫師輩 則以爲用泥金 則金色本來晦彩 初雖未洽盡 舊則漸漸光鮮云 而目今所見 恐未洽足 故敢此來稟矣 取魯曰 當初聖上 詢于畫師曰 汝輩知用箔金之妙理乎 其時張得萬對云知之 而箔金終不如泥金之便好云矣 及此塗金之後 金色終不如箔金之光鮮 始覺前者上教 問傳金之妙 良以此也 廷濟曰 下詢時 張得萬云 若用箔金 則金片連合處 終有痕迹 泥金則雖不如箔金之菱亂 而雍容滋潤之光 則勝之云矣 正萬曰 當前奉瞻 則泥金雖似晦彩 從傍詳審 則亦生光潤矣 上曰 古人則善用箔金 而今之畫師 則不知用疊金之妙理 疊金若善用 則豈不好矣 而今之畫才 亦不及於古矣,” (72면 上右) 1748(영조24)년 숙종어진 模寫時에도 泥金과 채색에 대해서는 그에게 물어볼 정도였다. 『승정원일기』 1748년 1월 23일 巳時條에 “...上曰 御容模寫 事 重大 而泥金倭朱紅 色品不如古 試問於張得萬 今若廣求 則可得好品否 渠輩則連用之 或有如古者耶 士大夫或宗班家 有舊儲則好矣”, (381면 上左) 이어 같은날 夜三更條에도 영조가 張得萬의 設彩가 노숙함을 말하고 있다.

115) 앞의 주 12 참조.

116) 앞의 주 30 참조.

117) 『승정원일기』 1713년 4월 18일조 및 4월 21일 巳時條 참조.

조역으로 同參하여 그 공으로 동반직을 제수받았다¹¹⁸⁾.

○ 작품 : <耆社契帖> (1720년, 朴東普, 金振汝, 張得萬, 許儔과 합작)

鄭維升 : 징 157, 사서 282, 대관 304

호 醉隱, 河東人, 六吾堂慶欽子, 維漸(1655-?, 1693문과, 官승지, 工포도인물)의 兄
(『승정원일기』에는 弟), 官현감, 工葡萄人物

○ 관련기록

1713(肅宗39)년 肅宗御眞 圖寫時 監造官으로 참여하였다¹¹⁹⁾. 이때 도제조 李頤命이 그를 배려하여 “정유승은 처음 입시하여 두려울 것이니 체모를 간소히 하여 안심케 하소서”라고 숙종에게 건의하기도 하였고, 진재해의 上精本을 쓰는가, 더 그려보는가의 논의에서는 “諸臣들에게 보여도 모두 화법에 어두우니 김진규, 정유승으로 하여금 결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두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기도 하였다¹²⁰⁾. 圖寫가 끝나자 陞敍되었으며, 이후 후대의 조영석, 윤덕희 등 감조관 임명時 前例로서 여러번 언급된다.

○ 작품 : <群猿遊> (『간송문화』 17-42)

曹世杰(1636-1705이후) : 징 147, 사서 252, 대관 291, 보록에 만남. 嘉禮, 冊禮都監 불참.

호 溟州, 須川, 溟洲, 清溪, 平壤人, 金明國의 제자, 官 僉使, 善畫山水

○ 관련기록

1688(숙종14)년 태조어진 模寫時 試才에 참여하였다. 이때 그는 평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숙종에 의해 직접 거명되어 그 제자 송창엽과 함께 불려오게 되었다¹²¹⁾. 그런데 그 전에 조세걸은 金構(1649-1704, 숙종대 문신, 1703년 우의정)의 막하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¹²²⁾.

118) 『승정원일기』 1713년 4월 22일 辰時條 및 5월 22일 포상기록 참조.

119) 『승정원일기』 1713년 4월 11일 未時條 “…又所啓 前縣監鄭維升 卽故臺諫鄭維漸之弟也 此人世代 以畫見稱矣 取考戊辰臚錄 則其時 以前縣監趙之耘 監造官啓下 同爲入參矣 今番節目中 監造官一人 亦當啓下 依戊辰例 以鄭維升啓下 何如上曰 依爲之”.

120) 『승정원일기』 1713년 4월 13일 巳時條

121) 『승정원일기』 1688년 3월 7일 巳時條 : “…上曰 勿論士夫 廣求善畫者可也 曹世杰 丁巳年間 觀其所畫人物 則頗極精妙矣 尙運曰 又有宋彰燁者 乃世杰弟子 而年少眼明 必招兩人取材後 可以用之矣”, (373면 上右); 또 3월 19일조를 보면 上京하여 試才에 참여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122) 『승정원일기』 1688년 3월 8일 午時條를 보면 도제조 金壽興이 잠깐 착각하여 曹世杰이 죽은 것으로 아되는 대목이 있다. (“…壽興曰 近來人才 漸不如古 至於畫師 尤有甚焉 庚申年諸功臣畫像時 中外畫師皆集 而臣嘗觀其所畫 則皆不能彷彿 況此御容模寫 所當十分謹慎 擇其善畫者 而臣之聞見孤陋 頃日與禮判南龍翼相議 則亦以爲近來中外 絕無善畫者 平壤曹世杰 畫法頗精 而聞已身死矣 上曰 頃聞世杰 爲海伯金構幕下 今已身死乎 丁巳(1677, 숙3)年上京時 其年(二行缺)…”), (376면 上)

1695(숙종21)년 肅宗御眞 圖寫時 주관화사로 참여하였다. 이때는 숙종이 大內에서 은밀히 진행하였기 때문에 당대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으나 후대의 기록에 많이 보인다¹²³⁾.

조세걸은 송창엽外 金振汝의 스승이었음도 확인된다¹²⁴⁾.

○ 작품

1682년경 金壽增을 위해 그린 <曲雲九曲圖> 畫帖 2권이 국립박물관에 전한다¹²⁵⁾.

이밖에 <溪山風雨圖> (70세작)와 스승 金明國의 영향을 짙게 보이는 산수인물화 여러 점이 전한다.

趙之耘(1637 - 1690) : 장151, 사서267, 대관296

자 耘之, 호 梅窓, 梅隱, 梅谷, 豐壤人, 趙涑의 子, 官 縣監, 부친처럼 매화, 영모를 잘 그렸다.

○ 관련기록

1688(肅宗14)년 太祖御眞 模寫時 監造官으로 참여하여 陞敍되었다¹²⁶⁾.

○ 작품 : 단순한 포치의 <宿鳥圖>가 여러 점 그의 작품으로 전한다. 간송미술관 소장 <메추리> (『간송문화』16-39) 小品이 秀作이다.

秦再起 : 장, 사서, 대관에 만남, 보록 183, 嘉禮都監 불참.

보록에 의하면 秦時英의 아들로 秦再奚와 형제간으로 보인다. (183면)

○ 관련기록

1713(肅宗39)년 肅宗御眞 圖寫時 隨從畫師로 참여하였다¹²⁷⁾.

○ 소개된 작품 없음.

秦再奚(? - 1735이전) : 장175, 사서319, 대관385, 보록183, 冊禮都監 불참

字 井伯, 號 僻隱, 豐基人, 畫員, 官 僉使, 譯官 秦時英의 子, 『근역서화징』에 許承賢 孫 躡라 되어 있으나 보록에 의하면 許承賢의 孫躡는 秦再奚의 부친 秦時英이며, 秦再起的 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장인은 南陽 洪處英으로 되어 있다. 다음 서화징에는 秦再奚의 生沒年이 1691-1769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이대로라면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중인 <蠶織圖> (1697년)는 7세작이 되고, 『肅宗仁元后嘉禮都監儀軌』(1702년)의 畫員명단에

123) 이보다 15년 뒤 숙종39년 숙종어진 圖寫時 이때 조세걸이 그린 本을 꺼내어 보는 장면이 있다. 『승정원일기』 1713년 4월 11일 未時條 참조.

124) 주 30 참조.

125) 俞俊英, 「九曲圖의 發生과 機能에 대하여 -한국실경산수화 발전의 一例 -, 『考古美術』 151, (1981. 9) 참조.

126) 『승정원일기』 1688년 3월 8일조 및 3월 19일 申時條 참조. 그리고 주 12참조.

127) 『승정원일기』 1713년 5월 22일조 : “...主管畫師前司果秦再奚(再雲으로 誤記됨)加資, 同參畫師閑良金振汝, 教鍊官張泰興, 前司果張得萬 東班職除授 隨從畫師 前司果秦再起, 許倣 各上弦弓 一張賜給 ...” (91면 上)

보이니 이때는 12세에 해당한다¹²⁸⁾.

그러면 그의 생졸년은 어느 정도 앞당겨져야 할까? 秦再奚의 沒年은 1727년 이후 1735년 이전임이 1735(영조11)년 世祖御眞 模寫時 기록에서 확인된다. 즉 당시 예조판서 김취로가 世祖御眞 模寫를 맡길 畫師들에 대해 대화하던 중 “丁未(1727)年 秦再奚가 죽기전 移畫하지 않은 것이 恨입니다”라고 말한 데서 확인된다¹²⁹⁾.

이는 『근역서화징』에 기록된 生沒年 보다 30-40년 더 올라가는 것으로 79세의 壽를 누렸던 秦再奚의 주활동 시기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초에 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浙派畫風을 구사한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

○ 관련기록

1702(肅宗28)년 肅宗仁元后嘉禮都監에 참여하였다.

1713(肅宗39)년 肅宗御眞 圖寫時 主管화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때 처음부터 秦再奚가 主管하여 초본을 圖寫하였으나 事體가 重大하니 한사람에게만 專任시키기는 곤란하다 하여 朴東普, 李藥, 金振汝, 金翊胄 등을 試才하였으나¹³⁰⁾, 결국 秦再奚의 것이 正本으로 채택되었다¹³¹⁾.

이때의 공으로 秦再奚는 堂上으로 올라가 본인은 도화서를 떠날 것을 희망하였으나, 그 畫才를 아깝게 여긴 예조에서는 전에 허의순을 위해 만들었던 遞兒職을 주어 계속 禮曹에 소속시켰었다¹³²⁾.

진재해는 이때 어진을 그린 이후 士大夫들의 초상화를 많이 맡게 된 듯 하다¹³³⁾.

아들 秦應會와 秦應福은 英祖代 어진도사에 참여하였다.

128) 秦再奚의 生沒年이 올려져야 할 것은 鄭柄模씨가 지적한 바 있다. 鄭柄模, 「조선시대후반기의 耕織圖」, 『美術史學研究』 192호(1991. 12) pp. 37 - 38참조.

129) 『승정원일기』 1735년 7월 28일 午時條: “...取魯曰 丁未年秦再奚 未死之前 使不得移畫 是可恨也 上曰 癸巳年 容之善成 非由於秦再奚之善手 而實緣國事之善成也 其後 士大夫家 皆用 秦再奚之手云矣”, (958면 上)

130) 앞의 주 30 참조.

131) 『승정원일기』 1713년 4월 21일조 참조.

132) 『승정원일기』 1713년 5월 6일조, “禮曹啓曰 畫員秦再奚 以圖寫御眞之功勞 特陞堂上 於渠則榮幸極矣 第有拘碍難便之端 卽今畫員 能解畫格者絕少 如秦再奚者 亦不易得 而圖畫署畫員 加資後不得仍存 古例然矣 在前尹商翊陞堂上後 因渠自願 本曹啓稟仍屬 以終其身矣 今此秦再奚 依尹商翊例 欲爲仍置本署 而渠以爲畫員雖甚未末 既陞堂上之後 爲食斗料 破格仍存 與生徒一體取材 事體不當 亦甚疲軟云 而願離本局 渠之情願如此 有難強迫 所當任其所爲 而然其畫才可惜 失其付祿之路 亦涉可矜矣 曾於壬申年間 畫師許義順 以影幀圖寫之工 東班職除授 仕滿遞職後 本曹判書 進達於榻前 加設司果祿一遞兒 使許義順 復屬付祿 厥後此一遞兒 則永爲曾經東班職者應付之樂事 定奪矣 許義順 上年冬身死 此遞兒今成空 秦再奚 仍屬本署 許付許義順祿 以爲勸獎畫工之地 何如 傳曰 允 戶曹謄錄”, (889면 上左 -하). 그런데 5월 22일조 포상기록에는 ‘加資’라 되어 있다.

133) 앞의 주 128 참조.

○ 작품

<金構像>을 모사했다고 전하며¹³⁴⁾, 조영석의兄 <趙榮福像>도 조영석과 함께 그렸다고 한다¹³⁵⁾. 現傳作으로는 서울대박물관 소장 <月下吹笛圖>가 잘 알려져 있고 국립박물관 소장 <蠶織圖>(1697년), 일본 大和文華館 소장 <藝苑合珍書畫帖>(『해외소장 한국문화재4』 일본2(한국국제교류재단, 1995. 1), 356면) 外 小品이 수점 전한다.

崔碩嶽(17세기 후반 활약) : 징, 사서, 대관에 만남. 보록186, 화원으로 교수를 지냈다.

○ 관련기록

- 1667(현종8)년 (肅宗世子受冊時) 冊禮都監에 참여하였다.
- 1671(현종12)년 王世子(후의 肅宗) 嘉禮都監에 참여하였다.
- 1676(肅宗2)년 (肅宗仁敬王后中宮殿受冊時) 冊禮都監에 참여하였다.
- 1681(肅宗7)년 肅宗 嘉禮都監에 참여하였다.
- 1688(肅宗14)년 太祖御眞 模寫時 隨從畫師로 참여하였다¹³⁶⁾.
- 1694(肅宗20)년 (肅宗仁顯王后中宮殿受冊時) 冊禮都監에 참여하였다.

韓時覺(1621-?) : 징146, 사서248, 대관273, 보록190, 자 子裕, 호 雪灘, 淸州人, 화원 善國의 子, 화원 李明郁의 장인, 화원 教授

○ 관련기록

- 1651(효종2)년 (孝宗仁宣后中宮殿受冊時) 冊禮都監에 참여하였다.
- 1651(효종2)년 (顯宗世子受冊時) 冊禮都監에 참여하였다.
- 1651(효종2)년 王世子(후의 顯宗) 嘉禮都監에 참여하였다.
- 1655(효종6)년 통신사 수행원으로 渡日하였다.
- 1671(현종12)년 王世子(후의 肅宗) 嘉禮都監에 참여하였다.
- 1676(肅宗2)년 (肅宗仁敬王后中宮殿受冊時) 冊禮都監에 참여하였다.
- 1688(肅宗14)년 太祖御眞 模寫時 試才에 참여하였다¹³⁷⁾.
- 1690(肅宗16)년 (景宗世子受冊時) 冊禮都監에 참여하였다.
- 1690(肅宗16)년 (玉山大嬪陞后受冊時) 冊禮都監에 참여하였다.

○ 작품

<北塞宣恩圖>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宋時烈傷>(77세상)을 그렸다고 전한다. 또 통

134) 『승정원일기』 1735년 7월 28일조에 “...取魯曰 臣叔父故相臣金構 身死後畫像掛於壁上 而使秦再奚移畫 則殊無差異矣 上曰 問于朴東普可也 東普曰 移畫則必多相違處矣 取魯曰 秦再奚今難得矣...”

135) 『승정원일기』 1748년 1월 23일 巳時條 영조와 조영석의 대화부분 참조

136) 앞의 주 12 참조.

137) 『승정원일기』 1688년 3월 19일 申時條 참조.

신사행과 관련된 선종화 <蓑笠人物圖>, <布袋圖> 등이 전한다.

許澁淑 : 징 175, 사서317, 대관383, 보록 185. 嘉禮都監 불참.

자 和敬, 陽川人, 教授 許哲子, 화원 司果

○ 관련기록

1712(肅宗38)년 김창집의 赴燕時 김창업과 함께 수행하여 宋 徽宗 <白鷺圖>를 模寫하였다. (『가재연행록』) 또 이때 북경화원이 <金昌集畫像> 초본을 그리는 것을 보고 중국의 설채법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했다 한다. 이 때문에 1713(숙종39)년 肅宗御眞 圖寫時 진재해가 설채를 할 즈음 혹 참고처가 있을지 모른다 하여 불러 들어와 진재해와 설채법에 대해 의논하게 하였다. 그리고 내쳐 隨從畫師로 참여하였다¹³⁸⁾.

1722(경종2)년 (景宗端懿王后復位時) 冊禮都監에 참여하였다.

○ 작품 : <耆社契帖> (1720년, 朴東普, 金振汝, 張泰興, 張得萬과 합작)

許義順(? - 1712) : 징, 사서, 대관에 안나옴, 보록 185

○ 관련기록

沒年이 1712년임이 확인된다¹³⁹⁾.

1671(현종12)년 王世子(후의 肅宗) 嘉禮都監에 참여하였다.

1676(肅宗2)년 (肅宗仁敬王后中宮殿受冊時) 冊禮都監에 참여하였다.

1681(肅宗7)년 肅宗嘉禮都監에 참여 하였다.

1688(肅宗14)년 太祖御眞 模寫時 同參畫師로 참여하여 東班正職을 除授받았다¹⁴⁰⁾. 임기만료 후 예조판서가 임금께 아뢰어 녹을 줄수 있는 遞兒職을 만들어 다시 녹을 받게 되었다가 1712년 겨울 歿했다. 허의순의 歿後 그 遞兒職은 영구히 東班職을 거친 자의 자리가 되었는데, 1713년 진재해가 이어받게 되었다¹⁴¹⁾.

○ 소개된 작품 없음

V. 結 語

이상 肅宗代의 御眞관련기록들을 검토해 보았다. 御眞관련 기록이란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儀軌類』 등인데, 御眞-王의 肖像畫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繪畫의 다른 분야와 달리 공식적인 기록이 소상히 남아 있어, 실물, 문헌자료의 영세성에 허덕이는 朝鮮王朝

138) 『승정원일기』 1713년 4월13일 巳時條 : “... 顯命曰 畫士許澁淑 今番金昌集赴燕時隨往矣 金昌集畫像 使北京畫員出草時見之 則中國設彩之法 與我有異云 許澁淑今亦招入 與秦再奚講論 何如 上曰 依爲之...”, (858면 하), 그리고 5월 22일자 論賞기록 참조.

139) 『승정원일기』 1713년 5월 5일조, (888면)

140) 『승정원일기』 1688년 3월 19일 申時條 참조. 그리고 앞의 주12 참조.

141) 『승정원일기』 1713년 5월 6일조 참조(앞주 131)

繪畫史 研究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들 기록중 『承政院日記』가 그 양이나 내용의 구체성에 있어 가장 가치가 크고, 實錄이나 儀軌는 공식적인 기록인만큼 개인적 생각, 평가 등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다 흥미로운 부분은 삭제되어 있다. 그러나 肅宗代의 『승정원일기』도 原本이 소실되어 후대에 다시 이루어진 탓으로 肅宗39년의 肅宗御眞 圖寫時 기록이 그나마 자세하고, 肅宗14년 太祖御眞 模寫時 기록은 實錄보다 오히려 소략하다. 그리고 肅宗21년은 아예 없다. 이런 부분은 실록과 儀軌의 기록으로 보충하였다.

肅宗代의 御眞圖寫는 임진왜란과 병자, 정묘호란으로 조선전기의 御眞과 眞殿의 대부분이 소실된 이래, 조선후반기 御眞 圖寫의 출발점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사회전반의 체제를 복구하는 과정에, 왕실의 존엄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御眞의 제작과 이를 모시는 眞殿의 重建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그에다가 肅宗 자신의 회화에 대한 개인적 애호도 가미되었다. 그래서 肅宗 재위 14년(1688) 世祖와 元宗御眞을 모시던 서울 南別殿에 太祖御眞을 模寫해 모시고, '別殿'이란 임시적 이름 대신 永禧殿이라 명명하였다(1690년). 그리고 비상시 永禧殿 影幀을 피난시키기 편하도록 흑장통을 만들어 평소에는 永禧殿 별전에 봉안하기도 하였다(1699년).

그러나 肅宗代 御眞제작에서 중요한 점은 역대왕들이 대개 돌아간 先王의 御眞을 모시는데 치중했던데 반해, 과감히 자신의 御眞을 그려 강화도에 長寧殿을 창건하여 봉안한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으로 인한 역대 御眞의 소실이라는 뼈아픈 경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위중 자신의 御眞을 그려 전호를 창설한 것은 지나치다는 士臣의 상소에서 보듯이, 왕권의 강화라는 內心의 意圖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말미암아 신하들의 비난하는 상소가 오래 계속되었지만, 결국 39년에는 都監까지 설치하여 다시 御眞을 圖寫하게 된다. 肅宗代 御眞圖寫는 이후 영조, 정조대에 활발한 御眞圖寫의 전주곡이 되었다. 또 임란이전의 관련기록이 모두 소실된 상황에서 後代 御眞圖寫의 典例가 되었다.

肅宗代 御眞관련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당시 畫壇의 一面貌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肅宗14년(1688) 太祖御眞 模寫時 主管書師였던 尹商翊이 『槿域書畫徵』, 『韓國書畫人名辭書』, 『韓國繪畫大觀』 등 기존의 繪畫史 辭書類에도 나오지 않는 점은 우리 繪畫史 자료가 얼마나 영세한가 다시 확인시켜 준다. 肅宗39년(1713) 御容圖寫都監 提調로 활약했던 文人畫家 金鎭圭의 작품이 현재 한점도 알려져 있지 않은 점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든 몇 종의 繪畫史 辭書類에 안나오는 이들로 尹商翊 이외에도 宋彰燁, 劉宗健, 李河, 張泰興, 秦再起, 崔碩獻, 許義順 등이 있었다. 肅宗代는 임진왜란과 병자, 정묘호란이 지난 再建期로서, 이 시대 이후로는 일제기까지 큰 戰亂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意外라는 생각까지 들며, 앞으로 우리 회화사 및 미술사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발굴, 정리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 앞으로 後代의 御眞관련 기록들도 정리되어 우리 繪畫史 研究에 새로운 자료가 더해져야 하겠다¹⁴²⁾. 끝

142) 英正代의 기록은 拙稿, 「英祖, 正祖代 御眞圖寫와 畫家들」, 『서울大學校博物館 年報』6호 (1994. 12) 참조.

으로 혼자 자료를 뒤지다 보니 본의 아니게 빠진 것, 틀린 곳도 있으리라 생각되나 讀者 여러분께 叱正을 바란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편, 『朝鮮王朝實錄』 (민족문화추진회 및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國譯本)
국사편찬위원회편, 『承政院日記』, 1961.
『國朝寶鑑』 上, 下,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影印, 1976. 2)
『內閣日歷(1779 - 1883)
『瑤源系譜』, 진단학회편 『韓國史』 V(을유문화사, 1969)에 年表내 所收
『(肅宗)御容圖寫都監儀軌』(奎章閣13995)
『(太祖)影幀模寫都監儀軌』(奎章閣13978, 13979, 14921)
姜寬植, 「朝鮮後期 奎章閣의 差備待令畫員制」, 『潤松文華』 47, (1994. 10), 50 - 97면
金芝英, 「18세기 畫員의 활동과 畫員畵의 변화」, 『韓國史論』 32(서울대 국사학과 1994.12)
朴廷蕙, 「朝鮮時代 冊禮都監儀軌의 繪畵史的 研究」, 『韓國文化』 14(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安輝濬, 『朝鮮王朝實錄의 書畵史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7.
李康七, 「御眞圖寫過程에 대한 小考 -李朝 肅宗朝를 중심으로 -」, 『古文化』 11집(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73)
李康七, 「哲宗大王御眞, 復元에 대한 小考」, 『文化財』 20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7. 12), 219 - 238쪽
李成美, 「臧書閣所藏 朝鮮王朝 嘉禮都監儀軌의 美術史的 考察」, 『臧書閣所藏嘉禮都監儀軌』(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李泰鎭, 「조선왕조의 儒敎政治와 王權」, 『韓國史論』 23, (서울대 국사학과, 1990. 8)
趙善美, 『韓國의 肖像畵』, 悅話堂, 1983
趙善美, 「朝鮮王朝時代 御眞製作過程에 관하여」, 『美學』 6집, 1979. 12. (복사)
趙興胤, 「韓國裝潢史料(1) -影幀模寫都監儀軌 -」, 『東方學志』 5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8. 3). 177 - 195쪽